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뉴스잡지 159호

Ching Hai

신실한 마음이 최고의 성역(聖域)이다

청하이 무상사/ 2001. 6. 12.-1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4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야만 센터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동기로 센터에 오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신과 함께 있더라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깥일에 집착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신이 바로 여러분 코 앞에 있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디서든 똑같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이런 환경은 여러분에게 좋으며 또한 여러분 대 다수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센터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센터는 신실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센터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습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세계를 이곳에 가져온다면 센터가 열 개 있어도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이 도움이 되는 것이며 앉아서 자유롭게 명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센터에는 성인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센터는 고요함과 명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것뿐일 때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센터에 와서도 계속 많은 것을 생각하겠지요. 그러면서 더 친절 부절 못하고 심지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할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왔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집에 가려면 여기서 3, 4일, 심지어 7일이나 기다려야 해.” 하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센터에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알고 있다면 항상 최상의 것을 얻을 것입니다.

센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해야만 센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센터에 오면 진정으로 명상하기를 원하고 고요해지기를 원하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곤 바깥에 영화를 보러 가야 하겠거나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거나 시골벽적인 곳이 더 재미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안 되고는 모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과정이 쉽도록 여러분을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순수함과 신실함에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CONTENTS 차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9호

출판일자 : 2005. 11. 5.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46 스승님 말씀

신실한 마음이 최고의 성역(聖域)이다/ 동물의 순수한 사랑

2 다채로운 이벤트

슬로베니아/ 태국/ 싱가포르/ 일본/ 대한민국/ 미국

12 채식 시대

건강, 환경주의, 동물 복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다/ 빅터와 채식동물들의 소풍

14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륜성왕 이야기

22/ 35 사랑의 조언

화내기 전에 찬물을 한 잔 마시자/
사랑은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나기 쉽게 해준다

23 지혜어록

부와 명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24 스승님의 농담

얕은 것과 얻은 것/ 입맛 돋우는 수학/ 바보 취급 말라고!

25 신기한 감응

스승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즉각 응답하시다/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다/ 검둥이 이야기

29 골라 뽑은 수행문답

영혼은 모든 경험을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
효과적인 감정 처리-화를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 물질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우리는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한다/
영혼의 가장 큰 적은 화가 아니라 무지이다

35 응급처치

썸 · 온 지혈 스프레이

36 과학과 영성

동물의 감성과 지성에 관한 최초의 학술회의

38 동물의 유정세계

황금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동물 친구들/
자비로운 사자가 아프리카 소녀를 구하다

43 수행의 팁

긍정적인 자장을 발산해 세상을 이롭게 하라/ 선행을 하되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라/ 계속해서 성인의 길에 집중하라/ 내면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천국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오래된 습관을 뿌리 뽑자/ 항상 지혜 안에 집중하면 영적 진보가 빨라진다

45 유용한 건강 정보

의료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도 돌보라

46 수행 일화

습관을 극복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자-고양이를 기르면서 얻은 통찰

47 시

사랑하는 신께

48 사랑의 실천

미국/ 브라질/ 칠레/ 파나마/ 인도네시아/ 태국/ 포모사/ 2005년 3월에서 6월 포모사 자선 활동 지출내역/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내역

61 전세계 연락처

64 관음 웹사이트

뒷표지/ 안 영혼의 교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MP3

뒷표지

무상예술품

제11대 천상의 보석



슬로베니아 소식

2005년 슬로베니아 선 행사에 가득했던 스승님의 사랑

베나민 보리제고 사형/ 류블라나 (원문 영어)

[류블라나] 슬로베니아 동수들은 류블라나(Ljubljana) 근처 숲 속에 있는 시골집을 명상 홀로 개조해 2005년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연례 선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 관례대로 류블라나 동수들은 크로아티아 동수들을 선 행사에 초대했으며 올해는 3명이 참석했다.

우리는 최근 헝가리 선 행사에서 스승님이 계획하신 명상 시간을 따르기로 하여 아침식사 1시간, 저녁식사 2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모두 명상시간으로 정했다. 선 행사 시작 때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스승님의 최신 DVD 두 편을 함께 시청했는데, 무작위로 선정한 DVD 두 편에서 모두 스승님이 슬로베니아를 언급하신 것을 보고 커다란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다.

올해 선 행사는 특별했다. 왜냐하면 스승님의 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스승님의 사랑이 선 행사장에서 퍼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 행사 기간 내내 이 부드러운 경이로움에 잠길 수 있었다. 몇몇 동수들은 이 경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행복에 겨워 소리내어 울기도 했고, 스승님을 위해 특별히 만든 명상 홀의 의자에 스승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본 동수들도 있었다. 또 주방에서 오렌지 꽃잎의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오는 축복을 받기도 했는데, 한 사제가 “이

향기는 스승님의 향수 냄새예요!”라고 소리쳤다.

비록 스승님께서 함께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스승님의 사랑을 느꼈고 항상 스승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번 선 행사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동수들을 위한 최고의 선 행사가 되었다!



태국 소식

음식 박람회에서 신성한 감로수로 구도자들의 갈증을 해소하다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방콕] 방콕 동수들은 해마다 열리는 가장 큰 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타이팩스(THAIFEX) 2006 아시아 세계 음식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2005년 3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방콕 무앙통 타니

(Muangthong Thani)에서 열렸다. 동수들은 운 좋게도 통조림 회사를 경영하는 사려 깊은 한 사형 덕분에



부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행사 준비를 해놓고, 신실한 마음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달라고 방콕 작업 팀에 부탁해 왔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의 전단지와 견본책자를 가져갔다. 많은 사람들이 견본책자를 읽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동수들을 만나려고 했다. 작업 팀은 또한 스승님의 비디오를 계속 상영했는데, 스승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여성 방문객은 “여러분의 부스를 방문하니 바로 행복해지는 느낌입니다.”라고 말하며 방편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또 다른 여성은 지도해 주는 스승도 없이 혼자 명상을 해

왔는데 내면의 체험도 많았지만 명상하는 동안 편안하지 않았다고 동수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동수들은 그녀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항상 스승님을 기억하라고 권했다. 다른 방문객들도 스승님을 보았을 때 많은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



들은 태국에서 스승님의 강연에 참가했다며 여전히 스승님을 믿고 스승님 지혜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동수들은 방콕 센터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방문해 볼 것을 권했다.

“지금 세계는 고양되었습니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은 타이팩스(THAIFEX) 2006 아시아 음식 박람회에서 사실로 증명되었다. 평소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소식

2005년 세계 도서 박람회에서 영적으로 고양된 세상을 목격하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싱가포르] 싱가포르 동수들은 2005년 5월 28일에서 6월 5일까지 선택(SUNTEC) 싱가포르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5년 세계 도서 박람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이번 행사 동안 동수들은 스승님과 특별히 인연있는 사람을 비롯해 이름 없는 많은 성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동수들이 전시한 부스의 주제는 ‘관음법문과 신(新) 황금시대’였다. 이 주제에 맞춰 부스는 아름답게 꾸며졌고, 특히 경외심을 불러 일으

키는 찬란한 옷을 입으신 스승님의 대형 법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스에서는 스승님의 DVD 강연도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행사 첫날 한 사형이 부스를 찍었는데 셔터를 누를 때 스승님 얼굴 주위와 눈, 특히 지혜안에서 빛나는 광채를 목격했다. 그는 나중에 사진에 빛이 포착된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DVD 강연을 보는 동안 스승님의 영상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비의 여신인 관음보살과 스승님을 결부시켜 생각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성인들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다. 성인들 가운데 한 명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부스에 와서 “어디서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동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이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에 스승님 견본책자를 읽은 적이 있다는 또 다른 신사는 즉시 영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채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 방문객은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스승님의 출판물을 많이 구입했으며 방편법을 배우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번 스승님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책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또 한 할머니는 부스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 모두가 스승님이 창작하고 디자인하신 것임을 알고는 “스승님은 신이 틀림없어요! 신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최근 스승님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켜서 사람들이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번 행사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런 행사에서는 참여한 다양한 수행 단체들이

종종 서로에게 거리감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박람회에서 다른 수행 단체의 한 여성이 우리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의 DVD를 한참 동안 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전단지과 견본책자를 받아갔다. 그녀는 그후에도 자주 찾아왔으며 심지어는 자진해서 전단지를 가져다가 자기 부스에서 나누어 주기도 했다.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방문객들과 다른 부스의 전시자들도 동수들처럼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 한 은퇴한 노신사는 견본책자를 읽는 동안 스승님이 그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많은 일을 통해 2005년 세계 도서 박람회에 참가했던 싱가포르 동수들은 인류의 영성이 고양되어 우리 모두가 신성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수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진보하도록 도와시는 자비로운 스승님을 알게 된 커다란 행운에 축복을 느꼈다. 이에 동수들은 더욱 열심히 수행하기로 맹세하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더 높이 진보하기를 희망했다.



도쿄 국제 도서전에서 구도자들과 만나다

도쿄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도쿄] 제 12회 도쿄 국제 도서전이 2005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도쿄 국제 전시센터에서 열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지역센터를 포함한 25개국 650명의 출판업자 대표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인문사회과학 구역에 위치한 우리 부스는 스승님의 예술작품과 출판물로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스승님을 소개하는 비디오와 몇 개의 강연 DVD가 세 대의 컴퓨터로 상영되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스의 분위기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여기에는 오사카에서 온 몇 명의 어울락인과 내몽골의 동수들도 있었다. 그들은 관음법문에 관심을 갖고 방편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 친척들과 함께 도쿄로 특별한 여행을 왔다. 부스에서 일하던 동수들은 이들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기뻐했고 이들이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열심히 나누어 주자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동수들은 또한 전시회의 다른 영성 단체들과 견본책자를 주고받으며 수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였다. 과거에는 영성에 대해 거의 몰랐던 사람들도 견본책자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스승님의 표지사진을 보고 몇몇 방문객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견본책자를 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스승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군요!”라며 감탄했다. 친구로부터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알게 되어 관음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던 채식주의자인 한 여성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바쁜 일들을 제



쳐놓고 전시회에 오는 여행을 했는지 물렸다가 우리 부스를 보는 순간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는 스승님의 출판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입하고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토야마(Toyama)에서 온 또 다른 여성은 스승님 책을 여러 권 구입하고 불찬 CD와 스승님 그림도 많이 주문했다. 나중에 동수들은 그녀가 10년 전에 입문을 했지만 수행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전시회에서 다시 관음가족이 되





고 싶어하면서도 재정상의 이유로 여행을 망설였다. 결국 혼자 기차로 도쿄에 가려고 결심을 했더니 그러자마자 여행경비를 충당할 만한 충분한 돈을 받게 되었고 또한 수행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그녀에게 8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인데도 차로 도쿄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은 우리가 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수행의 길에서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한 스승님의 전능한 힘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쿄 국제 도서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메시지를 받고 영적

으로 고양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부스를 잠깐 보거나 잠시 스승님의 사진을 보았을 뿐이지만 이런 행동으로 스승님과 인연을 맺고 미래에 수행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 스승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불가사의한 이로움일 것이다!

대한민국 소식

모두가 승자였던 2005년 5월 축제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상주] 봄의 푸르름과 신선함, 꽃들의 향연

그리고 청명한 하늘 외에도 5월에는 한국 동수들에게 축하할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스승님 생신과 스승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포함된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 동수들은 5월 15일 영동센터에서 특별 선 행사와 축하 행사를 열고 이어서 체육 대회도 했다.

선 행사 후, 동수들은 2005 유럽 선 DVD를 열심히 시청했다. 그런 다음 60세가 넘는 모든 동수들에게 예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 드리면서 어버이날을 축하했다. 스승님과 동수들의 사려 깊은 배려로 예기치 못한 꽃 선물을 받은 나이든 동수님들은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 나이든 동수님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뜻에서 모든 동수들은 큰 박수로 축하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동수들은 체육대회를 위해 가까운 초등학교로 가서 방편수행자와 가족들과 함께 운동과 레크레이션을 하였다. 학교 운동장에



서 어린 수
행자들은 어린이날
을 축하하며 즐거워했고 다
른 동수들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동수들은 모두 어린
아이처럼 즐겁게 그네를 타고, 공놀
이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천진스
레 뛰어 놀았다.

이어서 축구, 배구, 농구 그리고 이어달리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모임의 결속력을 가장 많이 보여준 경기는 이어달리기였다.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경기에는 모두가 참여했고 그 결과는 무승부였다. 이 경기에서 마지막 두 주자가 서로의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해 아름다운 장면이 자연스레 연출되었다. 최선을 다해 땀 동수들은 승패에 관계없이 웃음꽃을 피우며 기쁨을 나누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궁극의 가르침을 나눔으로 무한한 기쁨을 일깨우다

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샌프란시스코] 2005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와 산 호세 센터 동수들은 일 년에 두 번 열리는 ‘새로운 생활 박람회(New Living Expo)’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로 ‘뉴에이지’ 관련 제품을 전시했으며 채식주의자와 완전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도 전시했는데 영혼의 갈망에 이끌려 온 많은 구도자들이 궁극의 진리를 찾아서 박람회에 참가했다.

동수들은 부스를 두 개 설치해 한 곳에서는 스승님 출판물을 전시하고 비디오를 상영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채식을 홍보하고 채식 음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를 접하고 삶을 향상시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지역센터에서 후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스승님의 강연을 들었던 일부 방문객들은 스승님 사진을 보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에 기뻐했다. 또 수 천 명의 사람들은 부스에서 웃는 얼굴로 신속하게 일하는 동수들에게서 스승님의 축복이 담긴 봉사와 영혼의 자양분을 얻었다.



스승님을 소개하는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힘을 전해 주었다. 아름다운 자장이 강연장에 가득했고 수많은 영적 씨앗이 방문객들 마음에 심어졌다.

이번 행사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은 한 열성적인 방문객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고는 “칭하이 무상사는 위대한 스승이며 그녀의 가르침은 매우 숭고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박람회 첫날 부스를 방문해 동수들과의 만남을 기뻐했고 채식음식을 즐기며 “이것은 천국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도 찾아와 스승님 비디오를 주의 깊게 보고는 그의 영적인 탐구가 끝났다고 몇 번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동수들에게 “나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왔는데, 박람회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발견하고 스승님과 관음법문이 최고라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방편법을 배웠으며 입문하기를 갈망했다.

행사가 끝나고 동수들의 부스 옆에 있던 상인은 “여러분은 내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친절하신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익이나 탐욕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새로운 생활 박람회’가 끝난 후 동수들은 고양되었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이런 경험으로 동수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다.”라는 스승님의 감로법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신의 아이들을 환영하다

산호세 뉴스그룹 (원문 영어)

[산호세] 2005년 5월 21일 토요일, 산호세 동수들은 산호세 공공도서관 텔리 지역분관(Tully Community Branch)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스승님의 신성한 가르침을 나누었다.

강연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이 지역 라디오 방송과 TV 프로그램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스승님이 1999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강연하신 ‘신의 횃불이 되라’라는 비디오를 매우 집중해서 보며 호응을 나타냈다.

휴식시간에 참석자들은 동수들이 마련한 경서 전시대에서 즐겁게 책을 읽고 스승님 책과 CD, DVD를 구입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음식을 즐겼고,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동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호주 멜버른에서 온 방문객은 “3년 전 산호세에 왔을 때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스승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프로그램 12편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승님을 진정으로 찬탄하며 “전 스승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고 스승님이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봉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승님이 살아 있는 스승이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 대신에 유명한 스승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방편법을 4개월째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방문객은 “방편법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면으로 의문이 생길 때면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나 책을 통해 바로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음법문에 간절히 입문하고 싶어했다.

산호세 공공 도서관 텔리 공동 분관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에서 지역 동수들은 진리를 찾는 많은 구도자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관음가족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신의 아이들에게 최고로 자비로운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인도해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신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로스앤젤레스] 2005년 7월 9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산타아나 공공도서관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는데 강연장은 수용인원을 초과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동수들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처럼 행사장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비디오 강연은 스승님의 생애와 그 동안의 활동을 소개하는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로 시작되었으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강연하신 ‘환상은 실재의 반영이다’ 강연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비디오 강연이 끝난 뒤에 방문객들은 동수들이 마련한 맛있는 음식을 즐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워 영적인 만족도 얻었다. 방문객들



이 방편법을 배워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는 모습은 놀라웠다. 다음으로 이어진 명상 시간에는 모두가 큰 평화와 고요함을 경험했고 몇몇 방문객들은 그날 완전 입문이 가능한지 간절하게 묻기도 했다.



산타아나 공공도서관의 강연회를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제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했으며 참석자들은 돌보는 일에서부터 강연 후 청소까지 모든 일들을 많은 정성을 들여 세심하게 마무리했다. 또 하나의 흥법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텍사스 소식

스승님의 신성한 출현이 휴스턴을 고무시키다

휴스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휴스턴] 2005년 6월 19일 일요일, 스승님의 사랑과 인도로 휴스턴 동수들은 ‘사랑과 어부 노숙자 쉼터(Love & Fisher Shelter)’에서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채식음식을 점심으로 대접했다.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해서 이 특별한 영성의 날을

즐겼다. 동수들은 나란히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일했고 따사로운 분위기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스승님의 축복이 담



긴 음식을 먹는 동안 방문객들은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라는 비디오 강연을 보면서 험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지혜를 얻는 시간을 몇 시간이나마 가질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노숙자들은 동수들의 사랑과 친절함에 대해 감사를 나타내며 “이런 존경과 사랑이 담긴 대우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수들은 모두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신께 감사하세요.”라고 대답했다.

다음 일요일인 6월 26일 동수들은 바바라 부시 공공도서관에서 영상 강연회를 열어 대형화면으로 스승님의 DVD 강연 ‘인생이라는 호텔’을 상영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승님의 천국의 가르침에 깊이 집중했으며 비디오를 보고나서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훌륭한 채식을 즐겼다. 나중에 몇 명의 방문객들은 방법법을 신청했고 그 순간 동수들은 마치 스승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 같은 깊은 축복을 느꼈다.



채식 점심 식사와 비디오 강연에 함께했던 휴스턴 동수들은 스승님께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했다. “스승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도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스승님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당신의 사랑과 깨달음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 소식

신의 말씀을 전하는 홍법 행사가 연이어 성공을 거두다

뉴욕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뉴욕] 2005년 6월 초 뉴욕 센터 동수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일련의 홍법 행사를 개최했다.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바빴지만 이번 행사는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동수들이 참가한 첫 번째 행사는 6월 3일에서 5일까지 제이콥 제이비츠 센터(Jacob Javits Center)에서 열린 미국 도서 박람회였다. 동수들은 전시 부스를 아름답게 장식했는데 스승님의 만세등과 그림들을 전시해서 더욱 눈부시게 보였다.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과 예술적인 재능을 격찬했으며 스승님의 천상 메시지는 그들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졌다.

6월 26일, 동수들은 링컨 센터에서 열린 제4회 ‘건강한 맛’ 채식 전





사회에 참가했다. 행사에 전시된 모든 음식들은 주최측에게 순수 채식이라는 것을 검증 받아야 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요리책『무상주방(Supreme Kitchen)』과 그림들을 전시하는 한편 맛있는 채식 케이크와 간식들도 대접했다. 또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큰 TV 스크린으로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떤 사람들은 비디오를 여러 번 보고도 떠나려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한 여성은 그날 일정이 끝날 때까지 머물며 비디오를 보다가 스크린을 꺼야 한다고 하자 비디오를 끝까지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떤 방문객은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부스로 이끌려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동수들은 7월 10일 뉴욕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 앞서 동수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신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바라며 시내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했다. 그



중 25년 간 채식하며 진리의 길을 찾고 있던 한 신사는 다른 수행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법문도 그 영혼의 갈증을 없애주진 못했다고 했다. 그는 행사 전날 평소대로 명상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스승과 최고의 법문을 찾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는 집을 나서자마자 동수들에게서 전단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제 시간에 강연회에 도착해 관음법문에 입문 신청을 했다.

뉴욕 동수들은 위에 언급된 일련의 흥법 활동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사랑과 축복을 보내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건강, 환경주의, 동물 복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다

레론 라비노이즈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Mad Cowboy)』에서 저자인 하워드 F. 리먼은 인류의 식단에서 육식 주의 음식을 없애기 위한 강력하고도 믿을 만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농사와 목축업을 해 온 리먼은 암으로 죽음에 직면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된 그는 상업적인 목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화학약품에 의존하는 농사와 육식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해로움에 관한 진실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1996년, 비육장 운영을 그만둔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되어 먹거리 생산과 정제 과정 그리고 미국에 퍼지고 있는 ‘광우병’의 가능성에 관해 업계 종사자로서 견해를 피력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은 2003년 12월이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리먼이 출연한 이후 일부 텍사스 목축업자들은 리먼과 오프라 윈프리 측에 ‘식품 비방’을 사유로 천만 달러의 배상소송을 내고 이들이 농업에 관해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에서 논했던 ‘식품 비방’에 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육식이 매우 위험스럽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에서 리먼은 현재 많은 상업식 농장과 목장 그리고 도살장에서 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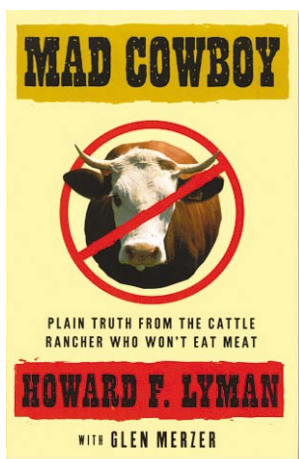
지는 소름끼치는 운영 상태와 사육 방식에 관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살충제, 제초제, 항생제, 성장 호르몬, 화학비료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시체들을 갈아 만든 사료들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암, 심장병, 고혈압, 골다공증, 비만과 기타 질병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한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결국 인류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도 병들게 해 대규모의 공기와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그에 따라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저자는 대규모 육류 제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강력한 역할에 관

해 언급하며 그것은 곧 수많은 가족농과 환경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4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리먼은 육식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는 한편 많은 연구자료와 개인적인 체험을 들어 환경 파괴와 세계의 기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식을 하는 것임을 알린다. “우리는 사실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진실을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육식은 확실히 생명에 해를 끼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다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리먼은 동료들의 파괴적인 목축방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으며 그 대신 밝은 쪽으로 관심을 돌려 진실을 알리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관한 우리의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렇게 그는 우리에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정보와 깊은 감동을 주는 책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는 독자들이 식생활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 책에 제시된 증거들은 선택에 의해서든 경제적인 상황

과 환경 조건으로 인한 강요에 의해서든 인류가 채식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많은 것을 복제할 수 있지만 자연은 결코 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와 모든 창조물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VICTOR'S PICNIC

With the Vegetarian Animals

아이들에게 채식을 하도록 용기를 주는 동화책 『빅터와 채식주의동물들의 소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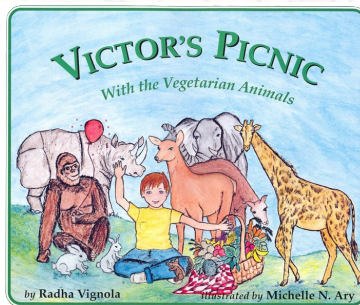
링 가오 사저/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원문 영어)

라다 비놀라(Radha Vignola)가 쓴 『빅터와 채식주의동물들의 소풍(아비바 출판사)』은 생생한 그림들과 보기 좋은 글씨체로 두 살부터 일곱 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채식의 유익함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채식주의자가 되려는 고귀한 생각으로 자기 농장의 동물들을 구해주고 싶어하는 빅터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모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어서 빅터는 채식주의를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빅터는 꿈에서 채식주의동물들과 소풍을 가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 책은 재미있는 그림들을 통해 육식동물과 채식주의동물의 다른 점,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세 살된 내 딸은 잠자기 전에 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중에 보니까 딸아이는 내가 상상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식료품점에 갔다. 쇼핑 도중에 할머니가 붉은 고기 팩을 집으며 그것이 소고기라고 말하자 딸아이는 곧바로 “우리는 동물들을 다치게 하거나 먹어서는 안돼요.”라고 지적했다.

책의 끝 부분에서 저자는 아이들이 외울 수 있는 간단한 시를 집어넣었다. “채소, 콩과 곡물, 열매와 씨, 이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네.”로 시작되는 이 시는 채식이 인류에게 적합한 식단이라는 성경의 메시지인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온 땅의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음식이 되리라.’(창세기 1:29)”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빅터와 채식주의동물들의 소풍』은 오래된 채식주의의 원칙을 다채롭고 쉽게 읽혀지는 형식에 담아 어린아이들에게도 재미와 교훈을 선사한다.



전륜성왕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1992. 9. 27.-28. 포모사 선이
(원문 중국어) MP3-CR14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강을 양도하다

아난(석가모니 부처의 시자)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 존이시여, 전생에 당신께서 중생들을 위해 어떤 이로운 일을 하셨는지 저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여 아난에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머나먼 옛날, 우리 행성 지구에는 네 개의 강과 두 명의 위대한 왕이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브라마(창조의 최고 힘)라는 뜻을 가진 ‘브라마데바’ 왕이었다. 그의 영토에는 강이 세 개 있었고 왕국과 백성들은 부유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취약했다. ‘바즈라다티’라고 불

렸던 다른 왕의 영토에는 강이 하나뿐이고 인구도 적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었다.

“내 병사들은 용맹스러우나 내 영토에는 강이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강은 백성들에게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 브라마데바 왕의 군대는 약하고 그의 영토에는 강이 세 개나 있으니 그에게 하나를 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바즈라다티 왕은 생각했다. “만일 승낙한다면 그와 친구가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거절한다면 그의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만약 강을 하나 준다면 나는 그와 모든 것을 나눌 것이며, 그의 백성에게 재난이 발생하면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를 공격하리라!” 그리하여 바즈라다티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브라마데바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브라마데바 왕은 땅을 내주기 싫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나라는 내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것이지 바즈라다티 왕에게 뺏은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와 조상님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내 땅을 양보하라는 너희 왕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바즈라다티 왕에게 브라마데바 왕의 말을 전했다.

바즈라다티 왕은 바로 브라마데바 왕국을 공격하

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보냈고, 브라마데바의 군대는 참패하고 말았다. 이어서 바즈라다티 왕이 곧장 수도로 진군해 왕궁을 포위하자 브라마데바 왕은 공포에 질려 침략자들에게 대적하지도 못했다. 이 위기 상황을 지켜보던 브라마데바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전하, 저들은 용맹하고 강력하나 우리는 약하옵니다. 어이하여 전하께선 강 하나에 집착하시어 백성들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나이까? 전하께서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나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바즈라다티 왕에게 강을 양도하시옵소서.”

브라마데바 왕은 이를 승낙하자 그의 신하들은 바즈라다티 왕을 만나 “저희 왕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왕께선 또한 당신에게 공주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두 나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위협에 처했을 때는 서로를 보호하며 돕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두 왕은 화해를 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으며 바즈라다티 왕은 공주를 데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고결한 한 사람이 모두를 이롭게 하다

얼마 후 공주는 임신을 했고 임신 중에 고귀한 단집(天蓋)이 그녀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그녀가 자든, 걷든, 앉든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든 그 단집은 그녀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해산일이 되어 공주는 몸이 금빛으로 빛났고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남자아이를 낳았다. 아기가 태어난 후 단집은 어머니 대신 아기를 따라다녔다. 이는 그 단집이 아기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었다.

많은 예언자들이 아기를 보러 와서 모두 찬탄했다. “전하! 이 아기님은 아주 특별하십니다. 왕자님의 풍채와 관상은 그가 이 세상 최고의 축복과 미덕을 타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왕자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당시 전통에서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특별한 현상의 발생이고 두

번째 조건은 아기의 탄생 별자리였다. “전하, 임신 중에 왕비님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예언자들이 물었다. “왕비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 첩보로 된 단집이 그녀의 머리 위에 계속 맴돌고 있었고 왕비가 어디를 가나 따라다녔소.”라고 왕이 답했다. 그래서 왕자는 ‘고귀한 단집’으로 이름지어졌다.

왕자가 성년이 되자, 바즈라다티 왕은 죽고 왕자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다. 왕이 된 고귀한 단집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 종종 왕궁을 떠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고귀한 단집 왕은 밖에 나갔다가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옷으로 몸을 가리지도 않은 채 밭을 일구는 농부들과 진흙 속에서 무거운 쟁기를 끌며 힘겹게 땅을 고르는 소를 보게 되었다. 고귀한 단집 왕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고된 노동으로 기진맥진한 것을 보고 수행원에게 왜 농부들이 저토록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었다.

“우리 나라는 농업국가이며 백성들 대부분이 농부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며 백성들은 굶주릴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라고 옆에 있던 관리가 대답했다. 이를 듣자마자 왕은 “진실로 내가 위대한 축복을 타고난 왕이라면 내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쌀과 곡식들이 충분해질 것이리라.”라고 발원을 했다. 고귀한 단집 왕이 이렇게 발원을 하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쌀과 다른 작물들이 저절로 자라났고 백성들이 원하면 쌀이든 채소든 백성들의 집에 나타났다.

얼마 뒤, 왕은 다시 백성들을 보기 위해 왕궁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물을 나르며 쌀을 싣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땀에 젖고 탈진한 것을 보자 왕은 신하에게 물었다. “어이하여 백성들이 저리도 일을 고되게 하는가?”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다. “전하, 전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이제 쌀과 채소가 충분하여 더 이상 들에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쌀을 싣어야 하며 쌀을 익힐 불을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또 발원을 했다. “내가 진실로 이 나라의 왕이 될 복덕이 있다면 내 백성들이 원하는 그 음식이 저절로 있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요리하느라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왕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요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시간이 흘러 왕이 다시 나들이를 나왔다가 이번에는 열심히 면사를 짓고 천을 짜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다시 왕이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해 묻자 신하들은 이렇게 고했다. “천을 짜지 않으면 백성들은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위로 고생하게 되니 열심히 베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왕은 발원을 했다. “만일 내가 진실로 이 나라의 왕이 될 복덕과 정당함을 가지고 있다면 백성들이 힘들게 실을 짓고 천을 짜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면 어떤 옷이라도 얻게 되리라.” 그러자 그것이 실현되어 그날로부터 왕의 백성들은 원하는 어떤 옷이든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나무에 잎이 자라는 대신 옷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집에 가져가기만 하면 되었다. 정말 굉장한 일이었다!

후에 왕은 다시 나들이를 나가 이번에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이하여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가?”라고 묻자 신하들이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넉넉하여 이제는 음악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즐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왕은 다시 한 번 발원을 했다. “내가 왕이 될 공덕과 고귀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면, 내 나라의 나무들이 음악을 연주해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어떤 음악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맹세가 이루어졌다!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악기가 나무에서 자라났고, 백성들이 손수 연주하고 싶지 않을 땐 음악이 악기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신하들은 왕을 알현하러 왔는데, 마침 식사시간이어서 왕은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했다. 왕과 음식을 함께 먹은 후, 신하들은 이 음식이

그들이 먹어보았던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은 그들을 건강하고 영적이며 행복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전하, 저희는 이런 좋은 음식을 이전에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맛이 훌륭하며 건강에 이롭고 몸과 마음에 행복을 주는 음식이옵니다!”라고 말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길 바란다면, 내가 먹는 시간에 같이 먹어야 하오. 그러면 여러분도 집에서 이와 똑같은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오.”라고 왕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식사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널리 알렸다. 그 순간부터 왕이 식사를 하게 되면 복을 올려 백성들에게 식사시간임을 알렸다. 백성들이 왕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자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이 육체와 정신에 생기를 주는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브라마데바 왕이 강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다

한편 브라마데바 왕은 사자를 보내 고귀한 단집 왕에게 존경을 표하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전했다. “선왕께서 살아 계셨을 때, 우리는 강 세 개 가운데 하나를 당신 나라에 넘겨 주었습니다. 이제 선왕께서 돌아가셨으니 부디 그 강을 돌려주십시오.” 이에 고귀한 단집 왕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강을 빼앗아 내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고통 받게 할 수 없소. 이건 사소한 문제이니 부디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라오. 나는 당신네 왕을 만나 우리 두 나라에 더욱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사자가 브라마데바 왕에게 고귀한 단집 왕의 말을 전하자 브라마데바 왕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두 왕은 만날 시간을 정해 군대를 대동하고 이제는 두 나라의 국경선이 된 그 강둑에 도착했다. 그들은 강 한가운데 배 한 척을 띄워 놓고 그 위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이 범상치 않은 이야기에 브라마데바 왕의 심장은 떨리기 시작했고, 마침 점심 시간이 되어 고귀한 단집 왕의 백성들이 복을 올리자 더욱 겁에 질렸다. 브라마데바는 고귀한 단집 왕의 군대가 그를 붙잡아 죽일 거라는 생각에 덜덜 떨다가 일어나 빌었다. 그의 사지는 힘이 빠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고귀한 단집 왕은 일어나 그를 진정시키고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이는 점심 시간이라는

브라마데바 왕은 아름다운 단집 왕을 보자마자 그의 장엄한 모습에 감명을 받아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귀한 단집 왕의 풍채는 황금 산처럼 빛을 발했고, 그의 머리칼은 수정처럼 영롱했으며, 두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입은 꽃같이 아름다웠고, 코는 곧고 우뚝했으며, 얼굴은 각지고 위엄이 흘렀으며, 귀는 길고 믿음직스럽게 늘어져 있었다. 고귀한 단집 왕을 보면 볼수록 왕의 위엄에 압도된 브라마데바 왕은 고귀한 단집 왕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위대한 브라마가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왕은 날이 매우 좋다고 하며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백성들은 먹을 음식과 쓸 물건이 넉넉하고 이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얻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아무것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거두거나 벌금을 매기지도 않으며 법을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나는 이 강을 당신께 돌려드려 나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해 고되게 일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들은 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얻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입을 옷과 즐길 음악들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을 위해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고귀한 단집 왕이 말했다.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병사들이 복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식사하는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면 백성들도 맛있고 색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관습입니다!”

이 말을 듣자 브라마데바 왕은 합장을 하며 말했다. “전하, 부디 당신의 사랑을 우리 백성들에게도 전해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에게도 당신 나라처럼 자연스레 음식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께 행복하겠습니다!”

전문성왕의 완벽한 통치

고귀한 단집 왕은 브라마데바 왕의 부탁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두 나라를 다스렸다. 이후 모든 신하들은 밤낮으로 엄숙한 왕궁에서 대기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황금바퀴를 단 찬란한 수레가 동쪽하늘에서 왕국으로 날아왔다. 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였으며 수레의 아름다운 빛이 사방을 비추었다. 이 장관을 보면서 고귀한 단집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기도를 올리며 “제가 축복을 받았고, 전문성왕(전생의 선행으로 인해 공덕을 지닌 통치자.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모든 왕들을 종속시키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함.)이 될 높은 공덕이 있다면 부디 저 장엄한 수레를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수레가 왕궁 바로 앞 공중에서 멈추었고 매우 귀중한 코끼리, 여인들, 진주, 그리고 로봇으로 보이는 전자병정* 등 많은 신성한 물건들이 함께 날아왔다. 온갖 것들이 있었다. (이 성스런 왕에게 보내진 수레는 아마 고대의 UFO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UFO가 존재했기 때문이지요.) 다른 행성에서 온 이 수레는 훌륭한 것이며 또한 전륜성왕을 위해 준비된 많은 성스런 도구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날 이후로 고귀한 단집 왕은 전륜성왕이 되어 많은 보물들을 소유하고 4대륙을 통치했다. 그의 기품과 공덕은 모든 중생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백성들은 다음의 10가지 계율을 지켰다. 1. 살생하지 말라. 2. 도둑질하지 말라. 3. 사음하지 말라. 4. 거짓말하지 말라. 5. 불화의 원인을 만들지 말라. 즉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나쁜 말을 이 쪽저쪽으로 옮겨서 양자 간에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6.

악담을 하지 말라. 7. 과장된 말을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실제 상황에도 말을 꾸미고 덧붙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8. 욕심부리지 말라. 9. 화내지 말라. 10. 술을 마시지 말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죽은 뒤에 모두 천국으로 올라갔다.

옛날 이야기를 한 이유

여기까지 말하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난아, 너는 고귀한 단집 왕이 바로 나의 전생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바즈라다티 왕은 현재의 내 아버지이며, 그 왕비는 내 어머니이니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그 당시 나는 매우 자비로웠으며 모든 이들을 내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나는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내 재산과 가르침을 나누었느니라. 이런 연유로 나는 오늘날 성불하여 삼계(三界)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이가 될 수 있었느니라. 또한 이런 인연으로 그 당시 나를 따랐던 이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다른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며 어떻게 함께 명상하는지를 배웠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난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연유와 인연으로 고귀한 단집 왕이 전륜성왕이 될 수 있었으며 출생 전부터 고귀한 단집이 그를 보호하게 된 것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아난아, 셀 수도 없는 아주 오래 전 옛날, 사바세계의 한 성스러운 산에 연각불(스스로 깨달은 부처)이 한 분 사셨다. 그 부처가 중풍으로 병이 나자 의사는 우유를 먹어야 낫다고 처방했다. 그래서 연각불은 생유라는 상인을 찾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우유를 조금 청했다. 그 상인은 기꺼이 그에게 우유를 주었고, 연각불은 3개월간 우유를 마신 후 병이 나았느니라. 후에 연각불은 감사하는 뜻에서 그의 은인인 생유가 많은 은총과 공덕을 받기를 기원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 나아가 아라한의 형태로 화현하였다. 그는 하늘만큼 아

주 거대한 형태로 나타났다가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연각불이 모습을 열세 번이나 바꾸자 이 광경을 본 생유는 크게 기뻐하였다. 마침내 연각불은 하늘에서 내려와 생유의 공양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연각불이 열반에 들자 생유는 그를 몹시 그리워했다. 그래서 생유는 연각불을 화장한 후 그의 사리를 모아 금으로 된 단지에 넣고 보탑(寶塔)을 세워 단지를 보관하고 고귀한 단집으로 그 탑에 그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은 생 동안 그 탑에 향료와 꽃, 과일과 음악 등을 공양하면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였다.”

이어서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연각불에게 공양한 공덕으로 생유는 무량한 축복을 받았고 천국과 지상 어디서든 영광된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매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는 태아가 될 때마다 매번 고귀한 단집의 보호를 받았다. 그 당시의 ‘생유’도 나였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재가자든 출가자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쌓는 수행을 해야만 세세생생 무한한 공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공양할 것을 맹세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대중 박수)

스승님의 해설

완벽한 보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입니다. 뭐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두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은 대로, 왕의 공덕이 아니었다면 그 백성들은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왕이나 깨달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축복이 있어야만 제자들이나 백성들, 신하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현명한 왕을 만나면 그 은총의 덕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매우 기뻐했으며 그 왕을 ‘성왕’ 또는 ‘성군’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신은 다윗 왕이 많은 실수를 범하자 그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전염병에 걸리도록 벌을 내렸습니다(역대기 1: 21 참조). 또 중국

역사에도 왕의 복덕이 완벽하면 그의 기도는 천지를 감동시킬 수 있으나 명청하거나 포악무도한 왕의 기도는 소용이 없으며 자신의 생명조차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백성과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미 관음법문이 있는데도 왜 수행을 계속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축복과 공덕, 도덕을 더욱 정화해야 하는 걸까요?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해탈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어째서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스승이 우리의 해탈을 보장하는데 왜 더욱 수행해서 도덕적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신이 우리에게 왕이나 수상이 되어 백성들을 이끌거나 깨달은 스승이 되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완벽한 복덕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신하들은 우리의 은총으로 이로움을 얻



고 만족과 지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선생이나 왕, 대통령 또는 수상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운명으로 안배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의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얻는다면 그 결과는 좋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만 커질 것입니다. 지옥에도 이른바 거짓 스승들이나 왕들, 거짓 성인들과 출가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명예나 막연한 지위를 바랄 것이 아니라 신의 안배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도록 요청 받으면 최

선을 다해서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먹고 자면 됩니다.

고귀한 단집 왕은 전생에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것처럼 큰 공덕을 얻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부처에게 보시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시할 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점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보시'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신·구·의가 지극히 순수했고 탐·진·치에 의한 어떤 의도도 없어야 합니다. 고귀한 단집 왕은 그저 도움이 된 것이 기뻛고 공덕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연각불도 그 보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빛을 진다거나 갚아야만 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런 경우에만 양쪽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행동으로 확실히 이로움을 얻게 되지요.

살아 있는 부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

이 이야기에서 성불하거나 수행이 높은 사람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각불은 그에게 보시한 상인에게 이로움을 주었고, 나중에 그 상인은 전륜성왕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이로움이 아닌 간접적인 이로움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 전부터 그 힘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이나 깨달은 사람 또는 이 세상에 내려온 살아 있는 스승이라면 그가 먹든 마시든 놀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

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대답: “예.” 대중 박수) 게다가 이런 이로움은 한두 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셀 수 없는 영겁 동안 지속됩니다! 정말 대단한 공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도 대단할 겁니다. (대중 웃음) 여러분에게 보시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위대해질 것이며 그 공덕 또한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더욱 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거지요. 이 공덕은 너무나도 크고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한다고 해서 축복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사람들에게 우리의 보시를 받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각불은 그 당시에 정말 보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무일푼이었고 늙고 약했으며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몸도 아팠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에게 보시하는 것은 누가 하든 때와 상황이 적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보시해서도 안 되며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를 받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게 원치 않는 보시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치우려고 하면서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좋지 않으며 공덕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공양을 하면 큰 공덕이 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주고 그렇지 않다면 주어진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위대한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무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를 만나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이로움만을 줍니다. 그는 그

저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 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그에게 주는 것은 모두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건 단지 여러분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구실일 뿐입니다.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수십 억의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이로움이 있습니다. 불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온통 수행자에게 보시한 공덕은 수백만 년간 지속될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말만 있지요!

앞서 나는 깨달은 스승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를 가든 그것은 그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이며 그가 무엇을 받든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우리의 축복과 공덕을 더욱 크게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신이 미래에 어떤 이유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완벽한 은총과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우침: 세상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수양하라

석가모니 부처는 나라의 은혜와 왕의 은혜, 즉 네 가지 은혜(四重恩)에 대해 말했습니다. 통치자가 훌륭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사람들은 그 왕의 신성한 통치에 의지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열려 있으며 시민들이 평화와 조화를 누린다면 그들은 나라와 지도자들의 축복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자신을 더욱 단련해 나라의 공덕을 더욱 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와 물질적인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나태해져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범부의 품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지라도 세상을 놓아버리



고자 하고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욕심과 집착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많은 생 동안 수행을 해 왔으며 성인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공덕도 수행을 통한 공덕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완벽해진다면 누가 우리에게 봉사하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부가 가진 미미한 공덕으로는 결코 영적으로 고양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즐기지만 말고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오!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군. 그는 그런 형상으로 변했고 전륜성왕이 되었어. 오! 저기 음식과 마실 것, 밥 같은 것들이 마법처럼 나타났어.” 이런 것들은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야기에 숨겨진 위대한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수행만이 신성한 은총의 최고 근원입니다. 무상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만이 최고의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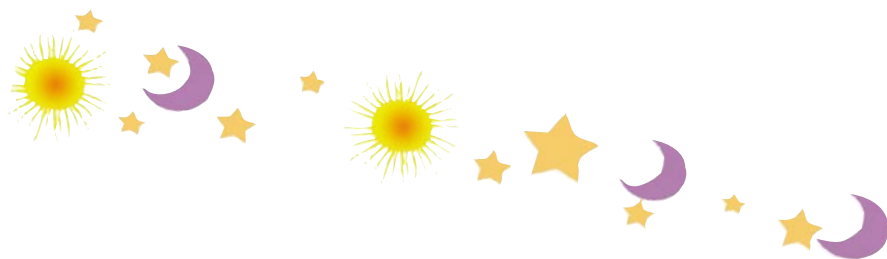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최고의 법문을 수행하고 어떻게 최고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영적인 진보를 성취하는 것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말해 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면 성경이나 불경, 도교 경전 또는 다른 경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든 먼저 우리 스스로를 수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옛 성인들의 말씀은 과장되거나 지나침이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 의하면, 전륜성왕이 태어날 때, 칠보(七寶)가 함께 나타난다고 한다. 칠보에는 고귀한 수레바퀴, 고귀한 코끼리, 고귀한 말들, 유능한 대신들, 충성스런 장군들, 신성한 진주, 귀한 여인들이 포함된다.



사랑의 조언



사랑은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나기 쉽게 해준다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0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를테면 개가 너무 아프거나 너무 늙어서 잠들게 해야 한다면 그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 주세요. 의사가 그것이 그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를 안아주고 끝날 때까지 내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냥 병원에 던져놓고 의사가 처리하게 내버려두진 마십시오. 그는 가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만 사랑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상관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야 한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묻어 주세요. 애완동물들에게 잘해주십시오.

부와 명예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청하이 무상사/ 1994. 5. 22. 포모사 타이베이 선철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27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영리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계락을 꾸밀 줄 알고 약간의 야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잘 다루고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친구와 친지, 국가와 세상을 해칠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가 무서운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무섭거나 부와 명예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통제할 줄 모르고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탐욕스럽고 야심이 많아 얼마를 가졌건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랄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르고 오히려 부와 명예에 이용당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와 명예를 사용하는 법을 안다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상 스승이라고 불리던 많은 사람들이 황제나 관리가 되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범부의 손이나 야망은 크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만 아주 위험해집니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청하이 무상사/ 1997. 12. 23.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원문 영어)
DVD No. 604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슴 속에 숭고한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저 정치인, 기껏해야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다스릴 영적인 목표가 없다면 그들은 좋은 정치인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취는 우리가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돈, 명예, 권력 같은 다른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입은 것과 얻은 것

청하이 무상사/ 1996. 5. 15. 캄보디아 프놈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50

어느 날 긴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한 손에만 장갑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나이 든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 이보게. 보아하니 장갑 한 쪽을 잃어버린 게로군!”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지요. “천만에요. 하나 주운 거예요!”



입마 돌우는 수학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오렌지 두 개와 바나나 두 개를 열 조각으로 자르면 뭐가 남게 되지?”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했어요. “과일 샐러드요!”



바보 취급 말라고!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시골 여자가 도시에 와서 호텔에 묵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그녀가 호텔 종업원에게 말했어요. “난 이렇게 작은 데다가 창문도 없고 침대도 없는 방에서 지낼 수 없어요!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다고 날 이렇게 바보 취급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인에게 가서 따지겠어요!”

그러자 그 종업원은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여긴 방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입니다!”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59/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59/jk1.htm> (포모사)



스승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즉각 응답하시다

코넬리아 마쯔너 사저/ 영국 런던 (원문 영어)

내가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볼 때마다 스승님은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무소부재한 당신의 신성한 힘을 보여 주셨다.

첫 번째 사건은 내가 조류 보호구역 근처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났다. 어느 날 밤, 나는 우리 집 정원 밖의 들판에 사는 작은 새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전에 나는 그런 종류의 새를 본 적이 있어서 그 새들이 호숫가의 키가 큰 풀숲에 둥지를 틀고 사는 새라는 것을 알았다. 새는 반 시간 가량을 계속 울어댔다. 그때 문득 정원에 사는 새 한 마리가 잃어버린 새끼를 찾기 위해 밤새 울었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친구는 그 다음 날 아침 풀장에서 익사한 아기 새를 발견했다고 했다.

내 집 마당에 사는 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스승님께 기도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미새가 새끼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요청했다. 그러자 즉시 분위기가 고요해지면서 새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스승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창조물을 그토록 빨리 도와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동했으며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 받은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좀 더 최근에 있었던 일은 내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농장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다.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고통스런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텃에 걸린 개나 자칼이 내는 소리 같았다. 밖은 달도 뜨지 않아 칙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깨워 그 동물을 찾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동물이 이웃 농장의 텃에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동안 걸어다니며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계속 찾아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생각되는 지역 쓰레기장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에서 거의 두 시간 가량 어둠 속에서 동물을 찾아다니다가 포기하려던 참에 그 동물은 더욱 강아지처럼 소리를 내고 언덕 근처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같았다. 그 뒤 아버지와 나는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언덕 위로 좀 더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동물을 불러 보셨다. 차안에 앉아 있던 나는 전에 스승님께서 새를 도와달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곤 다시 그래서 다시 지혜안에 강하게 집중하며 “제발, 스승님, 동물을 어머니에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스승님께 기도드렸다. 잠시 후 나는 위쪽을 쳐다보며 어머니에게 동물을 찾았는지 물어 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하고 대답하셨다. 그것은 태어난 지 6주도 안 되어 보이는 작고 새까만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아주 작았지만 우리는 어두운 밤에 덤불숲 속에서 그를 찾았던 것이다. 오직 스승님만이 이런 조건에서도 강아지를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 기뻐했다. 다시 한번 나는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했다. 이는 우리가 신실하게 다른 중생들의 이로움을 위해 기도하면 스승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또한 스승님께서 조건 없이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도와 주시는 방식에 깊이 감동받았다. 스승님, 저희 반려 동물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다

우 사저/ 중국 본토 (원문 중국어)

입문 후에 나는 부지런히 명상하고 오계를 지키며 가능한 많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스승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욕심과 분노, 탐닉에 대한 나의 성향을 크게 줄여주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예전처럼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나의 신·구·의를 깨끗이 유지하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결과, 나의 삶과 일 모든 것이 순탄해져서 나는 매우 행복하다.

또한 나는 스승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돌보시며 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은 입문식을 위해서 관음사자가 내가 사는 마을로 온 적이 있었다. 나는 관음사자를 보자 스승님을 뵈는 것처럼 무척 기뻐했다! 당시 입문식이 끝난 후 방편법도 전수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방편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몸이 약한 데다 그날 찜통같이 더웠던 탓에 기회를 놓치셨다. 관음사자가 떠난 뒤, 나는 어머니가 몹시 안타깝게 느껴져 관음사자가 다시 한 번 방문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자 이틀 후에 관음사자가 돌아오셨다. 나는 너무 기뻐하며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나중에 관음사자는 어머니 한 사람에게 방편법을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와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신 스승님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린다!

그후 나는 관음사자가 다른 연락인을 찾아왔다가 그가 집에 없던 탓에 대신 우리 집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에 감사할 따름이다!

입문 후에 나는 가능하면 자주 오불을 외웠다. 하지만 내내 오불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스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불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멋진걸까!’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꿈은 다시 이루어졌다. 1997년 10월 태국에서 있었던 국제 선 행사에서 스승님이 어느날 저녁 선 참가자들과 함께 오불을 반복해서 외우셨던 것이다. 스승님은 초등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무한한 사랑의 바다에 흠뻑 잠겼다.

수행이 진보하면서 나는 스승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시며 항상 나를 위해 최고의 안배를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의 위대한 자비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더욱 열심히 수행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스승님께 보답하기 위해 내면에 있는 천국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검둥이 이야기

박소연 사저/ 대한민국 서울 (원문 한국어)

검둥이는 나이가 아주 많고 몸집이 큰 충직한 개다. 초기 동물사랑 실천협회 (CARE: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버려진 동물 보호단체)가 가평군의 산기슭에 있는 허름한 폐가에서 자리잡고 있을 때부터 검둥이는 날씨가 상관없이 동료들과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대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검둥이는 겨울철이 되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협회 사람들과 함께 검둥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자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 뒤 검둥이의 기침은 해마다 더 심해졌고, 2005년 겨울에 와서야 우리는 검둥이의 식도에 심각한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종양이 커지면서 검둥이가 점점 더 심하게 기침을 하게 된 것이다. 종양으로 검둥이의 기침은 더욱 심해져 그 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2005년 1월, 수의사는 검둥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의사는 더 낙관적인 진단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검둥이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아보았다. 그러나 두 번째 수의사도 검둥이의 상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제 검둥이의 운명은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커다랗고 가엾은 검둥이를 끌어안고 나는 맛있는 것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재우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그것이 검둥이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위로하려는 행동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검둥이의 기침은 더 심하게 악화되었고 나는 하루하루 더 사는 것이 그에게는 고문일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날이 밝는 대로 검둥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안락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나는 신에게 이 가엾은 생명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아침 7시 경, 나는 검둥이 앞에서 명상을 시작했다. 관음을 시작했을 때, 나는 검둥이의 기침이 갑자기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밤에는 한 번 기침이 시작되면 10분 간격으로 2분 정도 내내 기침을 했다. 그러나 내가 관음을 하는 동안 검둥이는 훨씬 뜸하게 기침을 했으며 기침을 하더라도 1, 2초 정도만 지속될 뿐이었다. 이런 변화를 느끼고 나는 더욱 집중해서 명상했다.

명상을 하다가 무의식 중에 눈을 뜨자 옆에서 또렷한 눈망울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검둥이가 보였다. 느낌이 이상했다. 마치 검둥이와 내 마음이 서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검둥이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명상이 끝난 뒤, 나는 협회 직원인 아나샤(Anusha)와 함께 검둥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우려 했다. 그러나 검둥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 갑자기 저항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나샤의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나는 검둥이를 억지로 붙잡아 차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검둥이는 도망을 쳤다. 그러나 우리와 멀리 떨어지고 싶지는 않았던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마침내 아나샤와 함께 검둥이를 가까스로 잡아서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의사는, 아픈 개가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 그리고 의사는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마지막으로 검둥이를 검진하기 위해 검둥이의 종양을 검사하다가 갑자기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혹이 아주 작아졌어!”

당황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찍어보라고 했다. 그 순간, 아침에 명상할 때 나를 바라보던 검둥이의 고요한 눈길과 스승님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리 속을 섬광처럼 스쳐갔다. 바로 그거야! 내가 명상하는 동안 스승님께서 착하고 순수한 검둥이를 축복해 주신 것이었다.

엑스레이 검진을 끝낸 뒤,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처치도 없이 개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지!”라고 말했다.

전날 찍은 엑스레이에는 검둥이의 식도 주변을 휘감은 암 조직이 기도과 폐를 거의 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찍은 엑스레이에는 목과 폐 모두가 정상이었고, 암 조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의사는 두 개의 엑스레이를 비교하며 “정말 미안합니다. 하마터면 오진으로 그를 안락사시킬 뻔했군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검둥이를 데리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느낀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오직 스승님만 아실 것이다. 아나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언니의 그 기도 덕분에 검둥이가 나왔어요. 나도 명상을 하고 싶어요.” 나는 설명했다. “아나샤, 그건 내가 아니라 신께서 하신 거야. 신께서는 뭐든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했다.

나는 검둥이를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또한 마음씨 착한 아나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신 신께 깊이 감사드렸다. 검둥이가 기적같이 회복되고 나서 한 달 뒤, 아나샤는 사랑의 바다에 합류하여 방편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신의 지혜로운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다. 또한 우리들 곁에는 언제나 신의 신성한 가호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영혼은 모든 경험을 기회로 생각한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4.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6

질문: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괴로움이나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과 욕망이 윤회해야 한다면 왜 영혼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님: 왜냐하면 그 영혼이 습관과 욕망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 욕망과 습관이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걸 배우기 위해 다시 와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가려고 집을 나설 때 당신이 “여보, 저기 쓰레기 봉지 하나가 있는데 가는 길에 공원 밖 쓰레기장에 버려 줄래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 쓰레기를 가지고 차를 타고 직장에 갑니다. 하지만 그가 어깨에 쓰레기 봉지를 메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사무실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때서야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곳에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밖에 나와 처리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영혼은 이 모든 걸 기꺼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물질적인 차원에 있으면서 인간의 유한한 이해력이나 우리 행성의 물질적인 상상을 통해 문제를 토론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고통, 슬픔을 행복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슬픔을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의 것으로 여기고 항상 행복만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천국, 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그저 우리 내면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능력과 힘을 갖고 닦을 좋은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 윤회를 하거나 우주에 있는 어느 행성에서 어떤 특정한 잡일이나 심부름을 하게 돼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측면에서 보면 고통이나 슬픔은 단지 모든 현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는 영화를 볼 때 연기자들이 영화를 보다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게 하기 위해 영화에서 많은 고통과 위험을 겪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짜 고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보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의 영혼이나 연기자로 본다면 우리는 상관하



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물질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픔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아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 그림 밖에 있게 되고 그러면 진짜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명확히 이해가 되었나요? (대중: "예")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인데, 여러분이 이해했다니 기쁘군요. 만일 이해하지 못했다면 계속 명상해 보세요. 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진보했다는 것을 압니다.

효과적인 감정 처리 - 화를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1. 이스라엘 텔아비브 (원문 영어) DVD No. 671

질문: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이런 감정을 억제할 수 있지요?

스승님: 그것들을 억제하지 마세요. 화가 나거나 상처받은 감정을 억제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하십시오. 분개하지는 말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치료하세요. 화, 상처, 고통은 육신의 자연스런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어떻게 분노를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화나게 한다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화가 본래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만일 화를 내야만 한다면, 그냥 화를 내고 끝내버리세요. 너무 심하게 화를 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병에 걸리거나 미칠 것만 같을 겁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거나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를 낸 후에는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할 때는 빈정거리거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의 의견을 알리고 어떠한 이유로 자기가 화가 났는지 말하고 그



것을 참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한 다음 끝내고 다시 서로 사랑하세요.

어렸을 때 우리 대부분은 화를 내거나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내면의 자연스런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화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그것을 조정해서 화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좋아, 그래 난 화가 나.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라는 것처럼 그저 알 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치면 여러분은 아픕니다. 그것은 자연스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것을 말하세요. 때로는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그에게 설명할 기회가 생겨서 “아니예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뜻이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좋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겠지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뜻으로 했다 해도 여러분이 상처받아 아프고 화가 났다는 걸 듣고 나면 그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에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넌 나에게 두통거리야.”, “넌 목에 걸린 가시야.” 또는 “너는 다른 어딘가에 고통을 줘.”라는 말로 대화를 끝낼 겁니다. (대중 웃음)

사실입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과 같은 화를 삼켜서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뱉어 버리십시오.

물질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6. 남아프리카 더반 (원문 영어) DVD No. 668

질문: 신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스승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물질세계의 시간이라는 요인이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천상에서 신과 하나였을 때, 지금처럼 물질적인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신으로서 이 행성과 이 물질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신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다시 신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경험을 끝없이 창조해 온 것은 신으로서, 신의 창조물로서 신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실체화되는 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동



일 시간, 동일 장소에 함께 있습니다. 거기엔 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온갖 꽃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앞에 놓여 있는 꽃을 가리키심.) 그들을 함께 있게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항상 함께합니다. 하지만 내가 꽃 한 송이를 꺼내서 저쪽에 두고 (스승님이 직접 보여주심.) 이제 이 꽃들을 저 꽃과 다시 함께 두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일 초쯤 걸릴 것입니다. (스승님이 꽃을 다시 꽃꽂이 안에 꽂으심.) 알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적인 마음이 이런 방

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린 우리가 그것을 창조했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면 모든 걸 기억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누구이고,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여러분이 무엇을 창조해 왔고,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겼는지를 알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창조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전에 결코 피해자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최상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죽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과 함께하고, 모든 것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때 우린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상의 세계로 갈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작동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빨리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상에서는 어딘가 가고자 한다면 생각하는 즉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나 죽은 사람들이 생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하는 대로 즉시 그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선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원한다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차는 여기가 아닌 저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는 우선 돈을 벌어야 하고 그곳에 가서 가격을 묻고 서류에 서명을 한 후 집으로 운전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차 한 대를 원한다면 신이라 해도 당장 그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지요.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신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금

오거나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경전에서 항상 신·구·의를 깨끗이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좋은 나쁜든, 조만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모든 사실과 모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해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되돌아 올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의 모든 계율에서 좋은 일만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인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아주 두려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 더욱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한다

칭하이 무상사/ 1999. 11. 26. 남아프리카 더반 (원문 영어) DVD No. 668

질문: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실체화하고 창조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그것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싶다고 생각한 다음 바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그것들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들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아닌 천국의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왕국에 집중하고 물질적인 소유에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통을 배우거나 어떤 것을 실체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내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감옥을 떠나면 자유로워져 여러분의 영혼은 동시에 모든 곳에 있거나 많은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부주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영혼의 가장 큰 적은 화가 아니라 무지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3A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성질을 진정으로 죽이고 싶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 원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많은 일이 전적으로 당신의 실수 때문만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속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타고난 서로 다른 전생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이 그렇게 젊은데도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단점을 인정할 만큼 지혜롭고 겸손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난 당신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도움을 구하고 겸허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의 병은 이미 절반 정도는 고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난 확신합니다. 난 당신을 무척 신뢰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우리 영혼에게 가장 나쁜 적은 아닙니다. 가장 나쁜 적은 무지함, 또는 깨달음의 부족입니다. 당신은 그걸 파괴한 것입니다. 성냄은 불행하게도 가끔씩 우리 존재 안에 남겨지는 쓰레기의 흔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그것을 없애버리든가 그것이 스스로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십시오. (대중 박수)

성미를 조절할 수 있을 때는 조절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려다 자신을 다치게 하진 마십시오. 때로는 다른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진실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다 명확하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만일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분출한 다음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는 사과하고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 오빠, 나는 이런 뜻이었어요. 하지만 아까는 그것을 보다 좋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좀 차분해졌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미안해요. 화를 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면 나중에 주위 사람들을 보다 많은 사랑으로 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남아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성향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만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내기 전에 찬물을 한 잔 마시자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3

자신을 잘 보살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스스로 성미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면 화내기 전에 찬물을 한 잔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가 날 때마다 곧 바로 얼음을 넣은 찬물을 한 잔 들이키십시오. 그러면 소리치거나 말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생길 겁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치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치를 따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지르고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은 할 말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상대방은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요.

응급처치 

‘셀 · 온’ 지혈 스프레이



셀-온(SEAL-ON)은 작은 상처, 찰과상, 외상의 출혈을 멎게 하는 연무질(煙霧質)의 스프레이이다. 이를 상처 부위에 뿌리면 스프레이 액이 미세한 흰색가루로 변해 빠르게 마르면서 피를 흡수하고 부드러운 젤 막이 상처 부위에 형성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혈시킨다. 관련 제품으로는 스프레이 파우더, 코피를 멎게 하는 코 스펀지, 접착 패드, 무균 패드, 반창고와 압지가 있다.

효능 :

자연 성분으로 중성의 저자극성으로 알러지 반응 없음
어른, 아이 및 애완동물에게 사용 가능
상처에서 떼어낼 필요가 없어 다시 피가 나는 위험이 적음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eal-on.com/default.aspx> (영어-미국)

<http://www.seal-on.com/uk/default.aspx> (영어-영국)

<http://www.seal-on.com/de/default.aspx> (독일어)



동물의 감성과 지성에 관한 최초의 학술회의

영국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다윈부터 도킨스까지: 동물 감성과 과학의 상관관계”라는 획기적인 학술회의가 런던 퀸 엘리자베스 2세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세계 5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 의식과 지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옥스퍼드 대학 동물학 교수이자 동물 생태학자인 마리온 도킨스(Marion Dawkins) 씨는 동물 복지에 대해 인간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동물의 요구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킨스 교수에 이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영장류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Jane Goodall) 박사의 훌륭한 기초연설이 이어졌다. 45년 동안 침팬지 행동을 연구해서 얻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달 박사는 침팬지가 자신의 생활 환경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는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 발견을 다룬 동물에게로 확장 적용하면서 그녀는 가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좀 더 많은 자각을 촉구하며 생체 해부를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녀는 이 행성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도록



육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사추세츠 기술연구소의 아이린 페퍼버그(Irene Pepperberg) 교수는 알렉스라는 회색앵무새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통해 알렉스가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복잡한 인식 개념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로라도 대학의 마르크 베코프(Marc Bekoff) 교수는 동물에겐 확실히 감정이 있음을 주장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탐 리건(Tom Regan) 교수는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제기하며 동물을 ‘무엇’이 아닌 ‘존재’로서 논했다.

학회 내내 동물의 감성에 대한 수많은 과학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 동물의 지성을 새롭게 조명하였고 동물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가축은 오랫동안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의식이 없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가축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예리한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동물로 오랜 세월 동안 비웃음을 받아 왔던 양은 개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적이어서 적어도 열 사람과 오십 마리의 양을 얼굴 윤곽만

보고도 최소 2년 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바브라함 연구소의 신경생물학 교수인 케이스 켄드릭(Keith Kendrick)은 양들이 얼굴 표정을 읽을 뿐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찡그린 얼굴보다 웃는 얼굴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는 또한 양들이 어떻게 특정 사람들에게 강한 애정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양들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우울해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더라도 여전히 기억해서 반갑게 맞아준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돼지의 지적 능력도 가축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료들과 16년 간 돼지를 연구해 온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마이클 멘들(Michael Mendl) 박사는 돼지가 속임수의 명수로서 더 많은 먹이를 얻으려고 일부러 다른 돼지들을 다른 곳으로 이끈다는 점을 밝혀냈다.

같은 대학의 동물복지학과 크리스틴 니콜(Christine Nicol) 교수는 닭도 육구와 문제를 지닌 개별적 존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하며 “놀라운 인지 능력과 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구는 닭이 음식에 대한 놀라운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동안 포만감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닭은 다른 닭을 100마리 이상 인식하고 기억하며 30가지 이상의 발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등 세련된 사회적 행동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물 복지 단체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닭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였다. 실험에서 닭들이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불편하거나 다리를 저는 닭들은 진통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는 반면, 건강한 닭들은 그렇지 않은 사료를 먹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웹스터(Webster)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소가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잡지 157호 <과학자들,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말하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윤리적 음식의 선택, 국제 동물 복지 운동의 보급,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특별조항 및 법률에 대한 발표도 하였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동물 감성 연구를 전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에 빠짐없이 찬성했다.

“이번 학회는 UN, WTO, 세계동물건강협회(OIE) 그리고 그 회원 국가들에게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현재의 잔인한 사육 방식을 지양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교역과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인식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번 “다원에서 도킨스까지: 동물의 감성과 과학의 상관 관계” 학술회의는 수행자들이 오랫동안 진실로 믿어 왔던 ‘동물도 사람처럼 감성과 지성이 있다’라는 진실을 과학적으로 보다 인식하게 되었다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와 채식주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스승님의 끊임없는 노고와 사랑, 축복과 은총 속에 인류와 동물의 의식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고양되었는지 보여준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위에 언급된 학술회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iwf.org.uk/education/international.html> (영어)

<http://www.ciwf.org.uk/Cn/index.html> (중국어 간체)





황금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동물 친구들

어린 양/ 일본 도쿄

2005년 6월 NBC와 CNN은 도쿄 외곽의 타마 동물원에 사는 49세(사람 나이로 치면 80세 이상)의 오랑우탄 집시(Gypsy)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보도했다. 다음은 이 보도에 감동 받은 도쿄 센터 동수들이 집시를 보러 가서 알게 된 사실들이다.

집시는 동물원에 있는 다섯 마리 오랑우탄 중 한 마리이다. 이들 오랑우탄들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이 친구들의 신성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 오랑우탄은 고릴라나 침팬지와는 달리 무리를 지어서 누구를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다.

지난해 동물원의 영장류 수석 사육사인 히데토시 쿠로토리(Hidetoshi Kurotori)씨가 '오랑우탄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청소 도구와 악기 등 인간이 사용하는



찌는 듯한 땀악별 아래 집시가 셔츠를 모자처럼 머리 위에 두르고 있다.



이봐, 들어 봐, 나 하모니카 잘 볼 수 있어!

용품을 원숭이 우리에게 놓자 집시는 몇 가지 놀라운 행동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 중 집시는 가장 호기심 많고 재주 많은 학생으로 많은 기량을 보여 주었다. 그 중에는 형짚과 빗자루로 자기 우리 청소하기, 모종삽으로 구멍 파서 통에 든 쓰레기 치우기, 하모니카 불기가 있다.

집시는 다른 동료보다 더 뛰어난 솜씨로 이런 일을 해냈다. 다른 원숭이 친구 두 마리도 단순한 형태로는 하모니카를 볼 수 있지만 집시만이 하모니카를 좌우로 움직여 다른 소리를 내는 법을 이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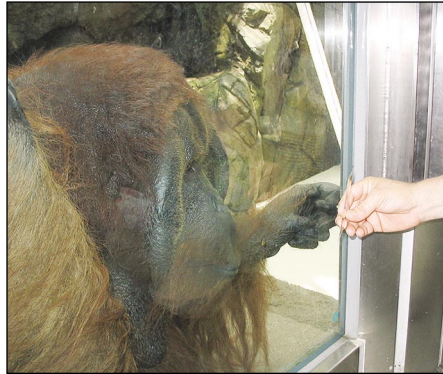
집시가 가진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패션 감각이다. 집시는 아름다운 잡지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최근 디자인한 옷을 입은 매력적인 모델 사진을 주로 본다. 게다가 좋아하는 패션 사진을 능숙하게 찢어 기념품을 모아 놓는 자기 베게 상자에 조심스럽게 보관한다.

최대 300kg 이상의 손아귀 힘을 가지고 있는 오랑우탄이 이런 정교한 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잡지에서 사

진을 찢어내는 솜씨는 정말 믿기 어려운 모기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야생 오랑우탄은 먹이를 찾기 위해 긴 풀잎을 뜯어 흰개미 굴에 넣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흰개미 굴을 만들고 그 속에 정기적으로 주스를 채워서 오랑우탄이 흰개미 굴의 작은 구멍으로 풀잎을 넣어 주스를 빨아먹도록 해준다.

다음으로 동수들은 큐(Q)라는 이름을 가진 큰 수 오랑우탄이 있는 유리로 된 건물에 들어갔다. 오랑우탄 수컷들은 암컷보다 훨씬 덩치가 크며 짝짓기 때를 빼고는 대개 암컷을 피한다. 1971년 이 동물원에 왔을 때 큐는 2살이었다. 어린 시절 큐는 다른 오랑우탄들보다 난폭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조용하고 온화해졌다. 우리가 그와 관람 지역 사이를 막아 놓은 유리벽에 다가가자 그는 유리벽 바로 앞에 와서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 손을 무릎에 점잖게 포개 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조용히 앉아 서로 교감하기 시작했다. 한 사형이 스승님의 사진을 꺼내 큐 가까이에 놓자 그는 바로 사진에 매료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유리에 몇 번 키스를 하고 꿈쩍도 않고 계속해서 집중하며 사진을 쳐다보았다. 사제가 또 다른 스승님의 최근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큐는 오

오랑우탄 큐가 스승님의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랜 시간 사진에 집중하고서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사형이 유리에 손을 대자 그 온화한 거인은 그의 손을 안쪽에서 그 자리에 놓았고 둘은 몇 분간 이런 자세로 접촉하고 있었다. 몇몇 새로운 방문객들이 소리를 내며 들어와 평온을 깨기 전까지 큐는 눈을 뜬 채로 평화롭게 명상을 하는 것 같았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자

큐는 일어나서 오랑우탄 우리의 다른 쪽으로 걸어가 창살을 힘껏 쳐 건물 안에 크게 울렸고 우리는 그 힘에 놀라 서 있었다.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문객의 움직임 때문에 잠시 동안 즐기던 평화가 깨지고 시끄러워지자 기분이 상한 큐는 태도가 달라졌다. 다른 방문객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와 유리벽을 두드리거나 그를 놀라게 하면 그는 흥분했고 마치 명상을 계속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동물은 붉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성격이 차분한 인도의 성인처럼 보였다

흥미로운 일은, 집시의 학습 능력이 크게 진보한 것이 바로 작년 일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 온화한 채식주의자들은 우리가 황금시대로 접어들면서 함께 고양된 것이 분명하다!



열심히 정원을 가꾸는 집시.

집시의 모습을 슬라이드로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nbc4.tv/news/3783723/detail.html>



집시가 모은 아름다운 모델 사진들.





자비로운 사자가 아프리카 소녀를 구하다

다니엘 그랜덤 사형 논평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원문 영어)

2005년 6월 21일자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비타제넷(Bita Genet) 외곽에서 12살 소녀가 강제 결혼을 시도하려던 일곱 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어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나중에 소녀는 사자 세 마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채 발견되었다. 이 사자들은 유괴범들을 쫓아내고도 경찰과 그녀의 친척들이 도착할 때까지 반나절 정도를 함께 머문 것이 분명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사자들은 대개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공격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위해 어린 소녀를 유괴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오랜 전통 중 하나다.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인의 결혼 중 70% 이상이 주로 시골에서 행해지는 유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사자의 자비로운 행동에 대한 이 놀라운 뉴스는 스승님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세상이 고양되었다는 또 다른 표시이며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인류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계속 알려서 인류가 그런 좋지 않은 관습을 버리고 보다 사랑이 넘치고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위 이야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id=869799&CMP=OTC-RSSFeeds0312>

http://breakingnews.nypost.com/dynamic/stories/E/ETHIOPA_GUARDED_BY_LIONS?SITE=NYNYP&SECTION=HOME&TEMPLATE=DEFAULT&CTIME=2005-06-21-13-13-16

동물의 순수한 사랑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3.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국제 선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5

우리가 개나 다른 존재보다 더 영리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일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지요. 아주 많은 경우 여러분은 어떤 일이 옳다고 느끼고 그 일에 대한 직관을 갖고 일을 하려 하지만 바깥 상황을 보곤 여러분의 두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야말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바깥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았다면 옳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들도 두뇌가 있기 때문이지요. 동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어린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개는 사람 나이로 10살 정도의 두뇌,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끔 나를 놀라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낮은 IQ, 혹은 어린 IQ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무조건적이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뭘 얻게 되지?”, “너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내게 좋은 게 있나? 나한테 뭐가 생겨?”라며 이것저것 따지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아마 장난감을 얻거나 관심을 끌려고 아주 조금 하겠지만 그렇게 사업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동물들이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아주 사랑스럽고 너그러운 걸 겁니다. 어쩌다 여러분이 개를 아주 심하게 꾸짖거나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 개깽하고 소리칠 수도 있겠지만 잠시 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곧바로 달려와 여러분이 전에 했던 일을 모두 용서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이 많고 끔찍한 마늘 냄새를 풍기더라도 그는 여러분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속옷을 일주일 동안이나 갈아입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조건적이기 때문이지요. 동물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은 그들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하이 무상사/ 1995. 6. 6.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78

긍정적인 자장을 발산해 세상을 이롭게 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명상하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신과 이로움을 주는 것, 긍정적인 자장을 발산하는 것에 대해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행과 이웃에게 이롭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조화롭게 사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자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모두 우리에게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을 하되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좋은 결과나 선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상, 공로, 별, 칭찬, 나무람이 필요한 어린 아이나 초보자 그리고 수행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높은 차원, 더 높은 등급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고 우리 양심에 비춰 올바른 것은 무엇이든 하지만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의 길에 집중하라

인간의 삶을 넘어 온 우주에 이로움을 주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상 언제나 부정적인 힘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방향을 바꿔 잘못된 길을 가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과 원칙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언제나 신의 길을 가고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와 찬탄, 비난을 뛰어넘어 고귀한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우면 모든 곳이 천국이다

신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 은, 다이아몬드, 루비와 같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빛나는 궁전이 아닙니다. 그곳은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며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의 왕국입니다. 신의 왕국을 우리 내면으로 가져온다면 어디를 가든 항상 천국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동경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놓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이미 천국을 얻었다면 우리가 살든 죽든 그것은 우리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천국을 얻지 못했다면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의 기운이 어두운 우리 영혼에 스며들지 못해 마음속엔 마음, 시기,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천국은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는 또 다른 장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면에 천국과 평화를 얻는다면 모든 곳이 천국이고 모든 곳이 평화롭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 정직하고 오래된 습관을 뿌리 뽑자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매우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조심하십시오. 채식을 하고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신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루 만이라도 매 순간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루종일 자신을 지켜보면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주의깊게 관찰하면 내 말뜻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아주 사소하고 깊이 뿌리박힌 미묘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반면 사랑, 자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생 동안 축적된 매우 미묘한 습관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남겨두고 싶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로 정직하고, 자신의 순수함과 행복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행복에도 보다 민감해지도록 훈련한다면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종과 나쁜 습관에 빠져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의 모든 생을 그냥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면 높은 의식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영적인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신을 비난하고 법문을 비난하고 스승을 비난하고 모든 것을 비난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뿌리 깊은 습관과 그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항상 주의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항상 지혜안에 집중하면 수행의 진보가 빠르다

걷고 잠자고 말하고 앉고 누워 있는 동안 항상 지혜안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수행이 훨씬 빠르게 진보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진보할수록 더욱 더 힘이 나서 더 많이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이 법문을 얻고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다니 안타깝습니다.

의료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칭하이 무상사/ 1999. 12. 30. 태국 방콕 국제 선육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80

질문: 저는 매일 많은 환자를 대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대할 때 오불을 외우는 것 말고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승님: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환자의 질병으로부터 영향 받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에너지에 영향 받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 때로는 가까이 가기도 싫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스승님: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라면 오불을 외우고 환자를 치료한 후에는 곧바로 손이나 환자와 접촉한 신체 부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레몬이 있다면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나 가까이 레몬이 있을 때는 레몬으로 씻으세요. 그러면 연결을 보다 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레몬이나 소금을 사용하세요. 조금만요. 레몬즙 몇 방울과 소금 약간이면 됩니다. 빨리 씻고 평균 다음 최소한 일곱 번 손을 털면 심리적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꼭 일곱 번 털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 손을 털었다 해도 더 강하게 털 수도 있습니다. 주로 환자들을 손으로 만져야 한다면 가능한 빨리 손을 씻고 터십시오. 그리고 많은 물로 헹구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도 돌보라

칭하이 무상사/ 1995. 10. 27. 포모사 시후 칭하이데이 국제 선칠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06

환자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내면으로 오불을 외우고 스승의 도움을 청하면서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엔 손을 아주 깨끗이 씻고 손을 털어서 심리적 연결을 끊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레몬과 소금으로 씻고 백단향유나 백단향 크림을 몸에 발라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십시오.

습관을 극복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자 - 고양이를 기르면서 얻은 통찰

밍진 사저/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원문 중국어)



전에 스승님이 부
잣집 세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
이 있었다. 하인들은
각자의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
회관계에서 그것을 어
떻게 사용하는지 아
무도 몰랐고, 결국은 이로 인해 일상의 일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 (뉴스잡지 61권 참조)
전에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인들의 어리
석음과 완고함을 비웃었지만 최근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된 뒤로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제
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세상에! 내가 부자집의
네 번째 하인이었다면 나도 틀림없이 청결함에
사로잡혀 세 하인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것
이다.

고양이를 기르기 전, 나는 집안 위생 관리를 잘
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고양이 한 마
리를 데려왔다. 남편은 내가 애완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도 없고 동물과 함께 온종일 어떻게 지
내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고
양이를 이미 집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쫓기는 싫
었다. 그래서 스승님의 훌륭한 본보기를 따라 고
양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
지 않았다. 고양이가 집에 온 처음 3일 동안 고
양이 때문에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고양이

털이 깨끗한 마루 여기저기에 떨어진 것을 본 나
는 하루 종일 고양이를 쫓아다니며 털을 치워야 했
다. 또한 고양이가 내 베개 위에서 자고 있거나
도 하면 바로 쫓아냈다. 고양이 털이 내 물건에
닿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같아
서는 나도 인내와 사랑과 관용으로 애완동물을
보살피시는 스승님처럼 고양이를 잘 돌봐 주고
싶었지만 집에 먼지 하나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
념은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았다. 그런 상황
이 발생할 때마다 나의 이런 습관은 저절로 나타
났다.

그래서 나는 스승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인
들도 그들의 결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고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두뇌
에 저장된 틀에 노예가 되어 그들 자신의 스승
이 될 수 없었다. 청결 그 자체로는 좋은 품성이
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기를 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사랑이다. 스승님은 누구보다도 위생에
대해 주의하시지만 필요한 경우엔 그것을 제쳐
두실 수 있다. 왜냐하면 동물을 보살피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는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상황
에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뿌리 깊은 습
관을 버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제는 감히 스승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세
하인을 비웃지 못한다. 대신 스승님의 축복과 관
음의 힘으로 언젠가 나의 습관을 극복하고 나 자
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한다.

사랑하는 신께

수안디 아젠 사형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원문 인도네시아어)

오, **신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알고 난 뒤에야
제 영혼이 고양되어
이제는 삶에 더 감사하고
당신의 창조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욱 기꺼이 희생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너그러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당신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시고
당신은 아주 단순하시며
당신은 어떤 연인보다 더 사랑이 넘치시고
바라는 것보다 더 희생하시며
그리고 당신은 어떤 희생자보다 더 고통받으십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영광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가 단지 당신의 창조물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당신에게 매우 소중하며
당신에게 심하게 응석을 부립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아도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께서 오랫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신이시여, 이 세상에서

남은 생을 당신에게만
오직 당신만을 위해 헌신하도록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신이시여

이 세상에서 당신이 베푸신 모든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미국 오리건 소식

스승님은 열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돌보신다

오리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난 3년 간 오리건 센터 동수들은 포틀랜드에 있는 클랙카마스 카운티(Clackamas County) 교도소에서 매달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왔다. 이 기간 동안 동수들은 스승님의 힘이 미묘하지만 효과적으로 수감자들에게 작용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초기에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동수들은 뉴스잡지와 스승님의 책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몇 권을 교도소 도서관에 기증해서 수감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2005년 6월 8일 오리건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 책을 읽은 세 명의 수감자들로부터 편지(사진 참조)를 한 통 받았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최근에 우리는 관음법문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 볼 수 있는 스승님의 가르침이나 학습 자료가 있다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동수들은 이 수감자들이 다음번 비디오 강연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곧바로 교도소 사무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무관들은 답장을 통해 세 명의 수감자들이 요주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강연회

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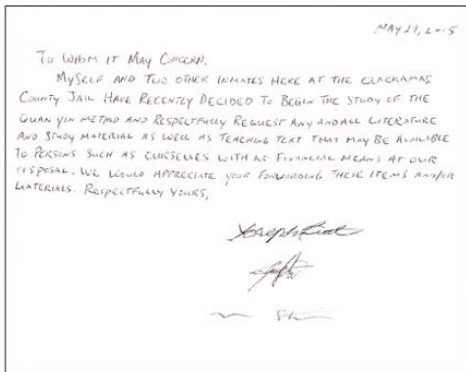
6월 11일 동수들이 비디오 강연회를 위해 교도소에 갔을 때, 강연회장에는 20명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편지를 썼던 세 명 가운데 한 명도 있었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께 기도하고 교도관들에게 다른 두 수감자가 다음 달에 다른 시설로 이동되면 이런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참석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했다. 마침내 교도관들은 동수들의 요청에 못 이겨 그들이 참석하도록 해주었다.

세 명의 수감자들은 강연회가 준비된 강연장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요주의 감시 대상이어서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거나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보낸 편지 때문이에요.”라고 동수들이 설명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고 방편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동수들이 힘써 준 것에 깊이 감동했다.

강연 DVD 상영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소리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수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연을 경청하였고 모두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방편법을 배운 후, 편지를 보냈던 세 명의 수감자들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했다. 또 다른 수감자도 이런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를 표하고 출소한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클랙카마스 카운티 교도소 강연회에서 얻은 이러한 체험으로 오리건 동수들은 열망하는 영혼들이 불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스승님께서 모두 돌보신다는 것과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을 맘껏 받으며 바깥에 사는 우리들이 스승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브라질 소식

어려운 시기에 스승님의 사랑이 밝게 빛나다

브라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5월 17일, 밤새 내린 폭우로 브라질 남부의 라게스(Lages) 지역에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카라하(Caraha) 강의 수위가 8미터로 높아졌고 강둑 근처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새벽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집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잠자던 사람들은 집에 갇혔다가 소방관에 의해서 구조되었다. 지역 당국은 대략 천 가구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예상했다.

어려운 이들의 입장을 이해한 상파울로 센터 동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 받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성금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동수들은 몇몇 브라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147.15kg의 식품 꾸러미를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꾸러미에는 커피, 검은콩, 설탕, 소금, 콩기름, 밀가루, 우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지원 활동을 하는 동안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일회용 기저귀와 분유를 나눠 주었다.

홍수 피해자들에게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위로가 제공되자 다시 한 번 스승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칠레 소식

재난으로 위장한 축복이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닿다

칠레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2004년 겨울, 극심한 홍수로 칠레 시골에 있는 많은 가정이 물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고립되었다. 그 당시 뉴스 매체가 재난 상황을 보도하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역 당국과 기관이 동원되었다. 그래서 칠레 동수들은 홍수로 가옥이 파괴되고 다리가 폐쇄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산간 지역인 라고 란코(Lago Ranco) 읍에 있는 학교로 강제 대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들을 돕고자 했던 동수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아 보기 위해 지역 응급 구조 직원과 접촉했고 오로라 레이바(Aurora Leiva) 씨의 극적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의 허름한 집은 란코 호수의 독 위에 있었는데 집의 기반이 손상되어 있었다. 평소 평화롭던 강이 홍수로 인해 범람하자 그녀와 아들은 집 몇 가지만 챙겨 뗏목을 타고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물이 빠진 뒤 오로라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돈이 없어 수리할 곳을 고치지 못했다. 읍사무소는 지역 도로와 다리 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2005년 2월 칠레 센터는 그녀의 집을 고치는 데 미화 1,200달러가 필요하다는 오로라 씨의 어려움을 시후 본부에 보고했다. 나중에 관음사자가 입문식을 거행하기 위해 센터에 오면서 이 돈을 가져와 그녀에게 스승

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

라고 란코 읍의 응급 구조 사무소장인 저먼 올리에(German Olea) 씨가 동수들에게 오로라 씨의 집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녀의 딸인 노라(Nora)와 함께 우리는 목재와 못, 지붕을 고칠 합석판을 구입한 후 바로 오로라 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었던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라 씨는 우리가 온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어여쁜 노인이 우리를 맞으러 나와 우리는 매우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고 우리가 뭘 하려는지 알게 된 그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했다. 나중에 그녀는 우리에게 집과 범람했던 강을 보여주면서, 재난으로 힘겨웠던 때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얘기했다. 그녀가 내놓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만족했으며 모두들 한 가족처럼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라 씨에게 과일과 채소가 가득 담긴 바구니와 약간의 지원금을 주었고, 며칠 뒤에는 집을 고칠 재료가 배달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행운과 불행의 차이를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4년 홍수로 인한 재난 때문에 오로라 씨는 스승님의 자애로운 도움과 무한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재난은 겉모습을 위장한 축복이었다.



파나마 소식

신생아들에게 스승님의 큰 사랑이 전해지다

파나마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2005년 5월 12일, 사랑하는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뜻에서 파나마 동수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성 토마스 병원의 신생아 병동을 찾았다. 해마다 파나마 동수들은 이 병원을 방문해 신생아들에게 신생아 용품을 기증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여느 때보다 많은 유아복, 기저귀, 우유병과 다른 용품들이 신생아들에게 전달되었다.

병원에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산모와 아이는 출산 다음 날 정오까지만 병원에 머물 수 있다. 동수들이 병원을 방문한 날이 마침 파나마 간호사의 날이어서 간호사들이 여느 때보다 더 친절했다. 다른 단체들이 몇몇 산모에게 이미 선물을 전달하고 갔던 터라 동수들은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산모들에게 선물 바구니를 전해 주었다.

사저들은 먼저 딸을 출산한 산모에게 큰 선물 바구니를 전해주며 기뻐했다.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자며 포즈를 취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선물 바구니에서 얼른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꺼내 딸의 조그만 머리맡에 두었다. 갑작스럽지만 자연스러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이는 그녀의 신성한 직관이 그렇게 해서 아기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 주

는 것처럼 보였다.

분만실은 신생아들로 가득했고 동수들은 선물 바구니를 산모에게 하나씩 전해주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맑게 빛나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은 산모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다음으로 동수들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 가운데 감염이나 질병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임산부가 있는 병동을 방문했고 이들도 선물을 받고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이 밝아졌다.

그날 밤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2005년 헝가리 선행사에서 하신 강연 비디오를 보고 음식과 케이크를 먹고 음료를 마시며 ‘사랑하는 스승님의 생신 축하’ 노래를 스페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로 부르면서 다시 한 번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했다. 동수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매들과 그 자녀들에게 스승님의 자비를 나눈 아름다운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다.

성 토마스 병원의 산모들, 신생아들과 더불어 파나마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비와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인도네시아 소식

스승님의 자비심이 어린이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다

자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2004년 크리스마스, 인도양에 쓰나미가 발생한 뒤 자카르타 구호 팀 동수들은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지 국제 적십자사와 계속 연락을 유지해 왔다.

쓰나미 발생 6 달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지역이 재건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때부터 해외 국가들과 비정부 기구들의 원조는 주택 재건, 교육적 필요 그리고 거주자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로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구호 팀은 적십자사로부터 아체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교복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자, 셔츠, 바지, 가방, 양말, 신발이 든 6천 세트의 의류를 주문했는데, 그 중 3천 개는 남학생용이었고, 나머지는 여학생용이었다.

그리고 2005년 6월 5일 월요일, 주문과 수송이 늦춰지는 등 몇가지 장애들이 있었지만 잘 처리한 후, 구호 팀과 적십자사 회원들은 학교 휴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기적처럼 교복을 전달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교복을 전달하는 것을 보

고는 자발적으로 도와주었으며 이에 동수들은 아체 지역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동안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자카르타 동수들은 스승님의 자비를 아체의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하며 신의 자비를 통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희망했다.



인도네시아 국제 적십자사에게
받은 감사편지



인도네시아 아체의 각 학교에서 받은 교복 영수증

태국 소식

화재 현장에서 피어난 자비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2005년 5월 18일 오전 11시경, 방콕 얀나와 (Yannawa) 지구 왓 프라야 크라이(Wat Phraya Krai) 빈민촌에 있는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90%가 목조 건물인 그 지역 가옥들로 불길이 급속도로 번져갔다.

재난 소식을 접한 지역 동수들은 다음 날 마을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에게 채식 볶음 국수 도시락을 전해 주었다. 극도로 허기져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빠르게 나눠 준 동수들은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했다.

5월 20일 약속대로 동수들은 화재 피해 지역에 다시 가서 마을 대표인 사콘 풍푼(Sakorn Pongpun) 씨와 다른 지역 대표자들을 통해 화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왓 프라야 크라이 마을은 목조 건물 서른 일곱 채가 줄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 건물 서



른 네 채가 전부 타버리고 150가구의 약 400명이 입은 옷을 빼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많은 피해 주민들이 지역 정부에서 제공한 텐트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일부만 근처의 친구나 친척집에서 머물 수 있었다.

사곤 씨와 이야기한 후, 동수들은 빵과 잼, 달콤한 살균 우유, 과일을 사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려고 음식 배분소 앞에 스승님의 법상을 걸었으며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24일, 동수들은 사곤 씨에게 전화해서 다른 단체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다른 단체에서 낮에 음식을 제공하긴 했지만 저녁에는 먹을 게 없어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컵라면을 보내왔지만 라면에 부어 먹을 물을 끓일 전기 보온병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동수들은 그날 저녁 아침에 먹을 빵과, 버터, 우유, 과일과 더불어 함께 사용할 전기 보온병 두 개를 제공했다.

5월 26일 동수들은 피해 주민에게 점심으로 채식 음식을 요리해 주었고, 그날 이후로도 자주 전화를 걸어 그들의 상황이 호전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왓 프라야 크라이 마을 주민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무런 원조품 없이 그들을 방문해 달라는 조건으로 동수들을 초청했고 이에 동수들은 조만간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들에게 보여 준 동수들의 진실한 사랑과 자비에 보답하려 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음식 배분소 앞에 붙여진 스승님의 법상에선 신의 사랑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퍼져 나왔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은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웠으며 압박감도 줄었다.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법상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고양되었다. 또한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으로 다른 사설 단체와 공공 단체들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증했다. 이에 태국 동수들은 어려운 시기에 피해 주민들과 다른 태국 국민들을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포모사 타이베이 소식

노숙자들이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돕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6월 단오절 전날 저녁 타이베이 동수들은 지역 노숙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는 또 다

른 활동을 시작했다.

6월 9일 아침 동수들은 동수들이 기증한 여름 옷



32상자를 타이베이 시 사회사업국의 완화 봉사센터에 가져다 주었고 오후에는 쿵후화, 수건, 치약, 칫솔, 식품, 옷과 같은 긴급 물자와 스승님의 경서, 견본책자, 뉴스잡지 같은 영적인 자양분을 전해 주었다. 이 기증품들은 봉사 센터장인 장후이 씨와 사회사업가인 장산중 씨가 노숙자들을 대표해서 받았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자선 활동을 확고히 실천하는 걸 보면서 지역 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큰 영감을 얻습니다. 전염병이 쉽게 퍼지는 무더운 여름에 노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개인위생 용품과 의류를 단 며칠만에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것

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특히 가벼운 쿵후화는 어려운 우리 노숙자 친구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줍니다.”

봉사 센터장인 장 씨는 감사의 말과 함께 동수들에게 집 없는 예술가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머그컵 두 세트를 주었다. 각 세트에는 머그컵이 세 개씩 들어 있었고 각각에는 ‘희망으로 살아가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사업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선물은 동수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 머그컵에는 “살아가면서 희망을 찾고, 가난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사회사업가들의 열정과 사랑을 보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숙자들 마음속엔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머그컵들은 노숙자들의 새로운 거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들에게 인연 있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타이베이 동수들은 불우한 이웃들이 다시 사랑과 행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고선 정말 큰 기쁨을 느꼈다.

창화 소식

사랑의 경단을 나누며

창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6월 4일 창화 센터 동수들은 ‘채식 쌀 경단에 사랑을 담고’라는 제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지역 주민 그리고 스승 고아원에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이른 아침부터 동수들은 시우웨이 센터에 모여 참

쌀 경단을 만들었다.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경단을 요리하며 나눠 줄 준비를 하자 센터는 맛있는 냄새로 넘쳐났다. 그날 오후 전부 180개의 경단이 스승님의 경서, 뉴스잡지, 견본책자와 함께 고아원에 전해졌다. 그런데 동수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이 경단



보다 스승님의 출판물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작은 천사들이 맛있는 음식보다 영혼의 자양분에 더 커다란 열망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동수들은 산스 촌의 린친 촌장의 도움을 받아 산스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질적·영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동수들이 마을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그들에게 우정과 관심을 전하며 뉴스잡지를 건네주자 주민들은 스승님 사진을 보고는 동수들을 행복한 미소로 환영해 주었다. 산스 마을이 축복 된 분위기로 바뀌면서 이날 활동은 완벽하게 끝을 맺었다.

마음과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책을 선물하다

2005년 5월과 6월에 창화 동수들은 지역 교도소와 소년원, 도서관, 대학, 지역 문화국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달해 대중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알도록 도왔다. 전달된 출판물은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다채로운 삶』, 『후광이 너무 꼭 껴요』, 『침묵의 눈물』, 『무자시(無子詩)』였다.

창화 교도소장인 팡즈지에 씨는 전에 타이베이 사랑의 바다 예술 센터의 행사에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 방편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동수들이 도착하자 따뜻하게 환영하며 영성 서적들을 선물해 준 데 고마워하며 책들이 재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겼다. 팡 소장은 또한



“방편법을 배우는 동안 저를 감싸는 평화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음법문이 재소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교화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동수들은 창화의 티엔중 소년원으로 갔다. 그곳에선 소년원장인 황진딩 씨와 교사들이 지원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장은 시간을 내어 동수들과 만나 자원 봉사 팀에 참여해 소년원생들과 상담하며 용기를 줄 것을 동수들에게 권유했다. 그러면서 “상담 센터에는 소년원생들을 후원하고 따스함을 전해 줄 여러 기관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원은 소년원생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활동이나 책은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적 수행과 자비로운 행동을 격려하는 책들은 분명 소년원생들에게 사랑을 일깨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창화 소년원장인 팡즈지에 씨가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부터 책을 기증받다.

동수들은 또한 창화 현 문화국과 창화 시립 도서관, 푸엔 항공소 마을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스승님의 최근 출판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세 곳 도서관들도 이전 활동 때처럼 사람들에게 보아나온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승님의 출판물을 환영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책을 나누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정화해서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게 하였다.



창화 교도소를 대표해서 창화 교도소장인 황진덕 씨가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부터 책을 기증받다.

지아이 소식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다

지아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6월 12일 아침부터 포모사 중부와 남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경작지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으며 지아이에서는 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6월 18일 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자 동수들은 즉시 사망자 가족들을 방문해 위로와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다.

동수들은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견본책자, 뉴스잡지, 채식 만두를 제공했고 수재민들에게 육식 대신 채식을 하고 영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 자신과 죽은 가족을 위해 신, 부처님, 스승님께 기도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들른 이웃들에게도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나누어 주자 그들은 선물을 받고 놀라워하면서도 행복해했다.

피해 가정을 방문하는 동안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과 돌보심을 강하게 느꼈다. 많은 곳에

선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 수위가 높았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동수들은 그들의 사랑의 활동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었다.





2005년 3월에서 6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일람표

표1과 표2 합계: NT\$547,316 (미화 약 17,375.11달러)

표1: 2005년 3월에서 6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지역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타이난	2005. 3. 23.	타이난 밍더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5. 3. 24.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5. 4. 23.	2005년 3월 29일에서 4월 23일까지 세계 책의 날을 후원하는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을 타이베이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도서관에 기증	358,000	A
타이난	2005. 4. 27.	타이난 밍더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지룽	2005. 4. 30.	『2005년 포모사 바다의 해』를 맞아 지룽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바도우즈 창탄리 해변 청소	8,125	B
타이난	2005. 4. 30.	『2005년 포모사 바다의 해』를 맞아 타이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골든코스트 해변 청소	205	C
지아이	2005. 5. 3.	국립 중청 대학에서 열린 2005년 전국대학체전(2005. 5. 3.-4. 29.)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가르침 소개, 영성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 및 채식 소개	10,800	D
창화	2005. 5. 20.	도덕성 함양을 위해 창화 현의 교도소, 대학, 도서관에 대중들을 위한 칭하이 무상사의 영성 출판물 기증	11,500	E
타이난	2005. 5. 25.	타이난 밍더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5. 5. 26.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창화	2005. 6. 4.	2005년 단오절을 맞아 지역 고아들, 빈곤 가정, 거주자들을 위한 채식만두 제공	4,500	F
미아오리	2005. 6. 5.	시후 향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 노력에 동참,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	3,700	G
화롄	2005. 6. 6.	화롄 지역 법원 검찰 보호서 내 가석방자들을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5. 6. 9.	2005년 단오절을 맞아 타이베이 자치 사회사업국의 완화 봉사센터의 노숙자들에게 츠크신발, 화장실 용품, 옷, 사탕과 과자 제공	19,986	H
화롄	2005. 6. 13.	화롄 지역 검찰 보호서 산하 사법부 내 약물 재활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중독자 방문 및 후원	0	
지아이	2005. 6. 18.	2005년 6월 폭우 피해 지역에 영성 서적과 채식 만두, 성금 전달	20,000	I
타이난	2005. 6. 22.	타이난 밍더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5. 6. 23.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창화	2005. 6. 23.	창화 현의 시우웨이, 산스, 열린 마을 도서관에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 기증	4,500	J
타이난	2005. 6. 25.	타이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골든코스트 해변 청소(동수 지원)	0	
Total			NT\$ 44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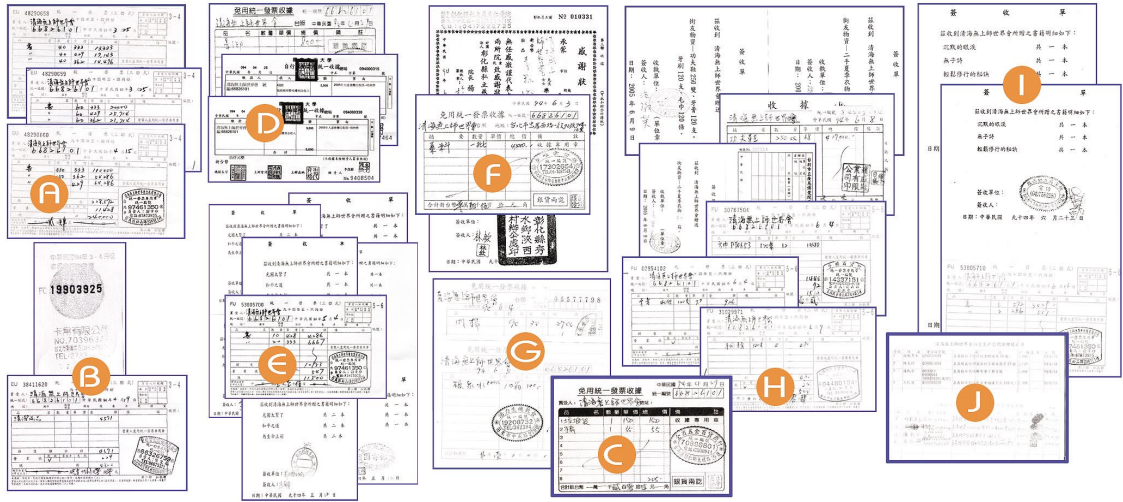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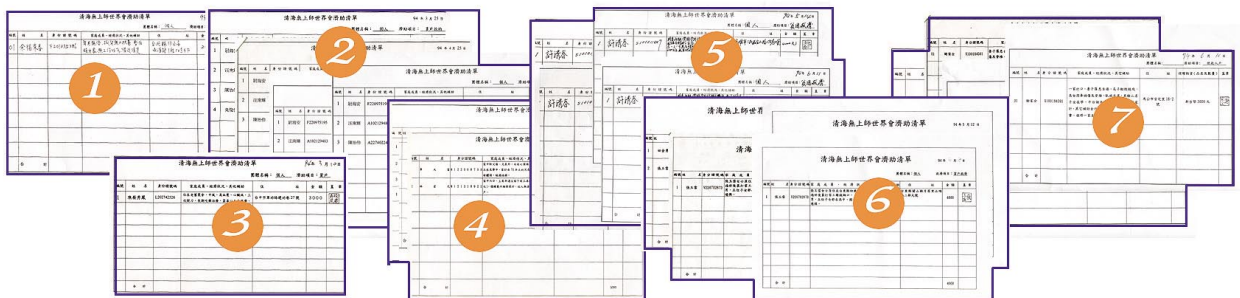


표2: 2005년 3월에서 6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가정 지원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2005년 3월		2005년 4월		2005년 5월		2005년 6월		
지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부록
지룽	1	2,000	0	0	0	0	0	0	1
타이베이	4	10,000	3	8,000	3	8,000	2	6,000	2
타이중	1	3,000	0	0	0	0	0	0	3
난토우	6	21,000	0	0	0	0	0	0	4
가오슝	1	4,000	1	4,000	1	4,000	1	4,000	5
타이중	2	8,000	1	4,000	1	4,000	1	4,000	6
평후	1	3,000	1	3,000	1	3,000	1	3,000	7
월별 소계	16	\$51,000	6	\$19,000	6	\$19,000	5	\$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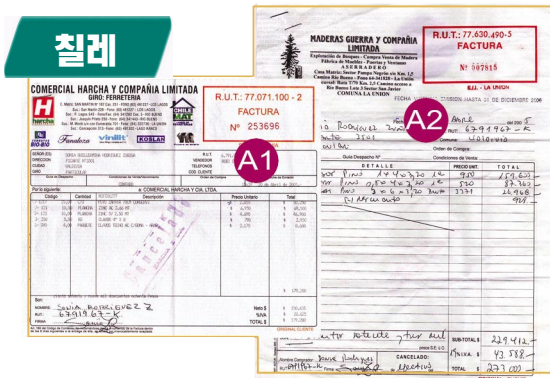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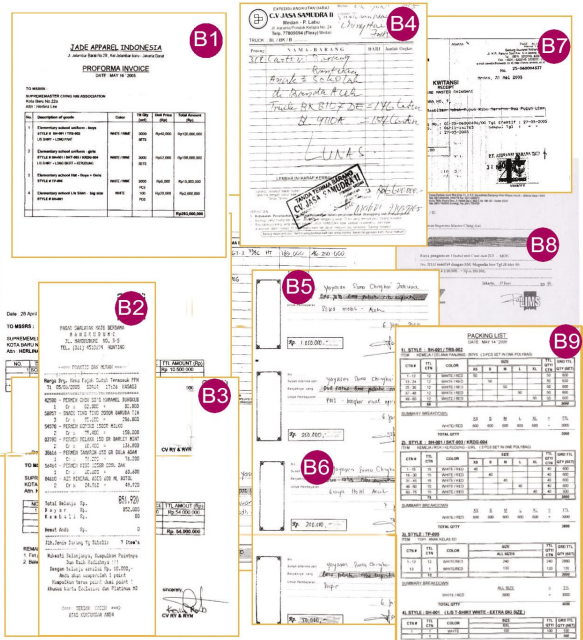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의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나라	재난 사유	지출 내역	금액	부록
칠레	빈곤 가정	목재, 함석판, 못, 성금	700.00페소 (미화 약 1,200.00달러)	빈곤 가정
브라질	홍수 피해	식품 (커피, 검은 콩, 설탕, 소금, 대두, 콩기름, 밀가루, 우유, 일회용 기저귀, 분유)	4,028.46레알 (미화 약 1,549.40달러)	홍수 피해
인도네시아	쓰나미	초등학교 교복 (셔츠, 바지, 치마, 술, 모자, 머리장식, 가방, 양말, 신발), 운송비, 간식, 사탕, 식수, 잡비 (자동차 대여료, 하역비, 숙박비, 운전사 인건비, 화물 보험료)	419,349,045.00루피아 (미화약44,142.00달러)	쓰나미
		총액	미화 약 46,891.40달러	



인도네시아



전세계 연락처

■ 아프리카 ■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 베난: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샤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 케냐: 센터/ 254-735564987/ saintearthmail@yahoo.co.uk
-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 모리셔스:

-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mchmauritius@intnet.mu
-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 요하네스버그/ Ms. Khená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truelove@mypersonalemail.com
- ★ 토고:

- 필리메/ 센터/ 228-4-410-948
-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regresandocasa25@yahoo.com.ar
- ★ 볼리비아:
-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 브라질:
-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 레시페/ Ms. Salma Casiera Alvarez/ 55-81-3262912
-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 캐나다:
-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sympatico.ca
-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 산티아고/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millaraynoemi@yahoo.com
-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diachadicha@hotmail.com

★ 코스타리카:

- 산호세/ 센터/ 506-2200-753
-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godsdirectlove@yahoo.com.mx
-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tt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 니카라과:

-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 파나마: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lizzari/ 51-054-453828/ qyarequipa@yahoo.com
-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 리마/ 센터/ 51-1-4716472

- 리마/ Mr. Edgar Nadal/ 51-1-4667737
- 리마/ Ms. Teresa de Nadal/ edyer@viabcp.com
-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 트루히요/ Mr. & Mrs. Raúl Seura Prado/ 51-44-221668/ rsp_trujillo@hotmail.com

- ★ 산살바도르: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미국:

-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internet.com
- *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illin54@hotmail.com
- 로스앤젤레스/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 세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Margorifico@yahoo.com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l@ureach.com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597@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g Poeli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캔터키: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캔터키: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 블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브라스카: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 뉴저지: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iusa.com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JNawarskas@salud.unm.edu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하이오: Mr. Gilbert Rivera/ 1-9513-226-3686/ wisdmeye@ao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8@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 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l/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 62-21-6510715/ herlina@ueil.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ماس.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l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l@sby.dnet.net.id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 62-274-411-701/ tadianl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t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ath.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ig@yahoo.co.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mr1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유태인/ 02-795-3927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ldae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희/ 053-767-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김수동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812-1250
안동/ 김삼태/ 054-821-3043
청곡/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8622518/ supreme2@tm.net.my
팔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팔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e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aik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포카라/ Mr. Shiva Bastola/ 977-61-28255
포카라/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yahoo.co.th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66-2-5914571/ edasnlad@stou.ac.th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an/ 66-50-332136/ siriwanli@hot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유럽■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비엔나/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센터/ 32-472-670272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qybelgium@yahoo.com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uinzbourg@t-onlin.de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00-31-626478716/ Quan-Am@chello.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osloqy@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6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l@yahoo.es
★ 스웨덴: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weden1@tele2.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 영국:
임스워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i@matters19.freeser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토크홀름: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ive.mail@trscali.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바이런베이, 노던리버스/ Ms.Kaye Benen/ 61-2-6672 7203/ Kayebenen@dodo.com.au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센터/ 61-8-9242-1189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l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켓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583 <영어 + 26개 국어 자막: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재판>

수행의 길을 굳게 결심하라

1997. 5. 10.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

756 <영어 + 23개 국어 자막>

정직의 가치

2003. 2. 16.-18.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758 <영어 + 27개 국어 자막>

깨달음을 전하는 힘

2003. 1. 18, 24.-27. 플로리다 센터 단체 명상

695 <중국어 + 20개 국어 자막: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재판>

영성과 지성의 교류(1, 2)

2000. 5. 6. 포모사 타이베이 중앙연구회 세미나

670 <영어 + 23개 국어 자막: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재판>

우리의 완전한 본성

1999. 9. 26.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중국어>

MP3-CL02

1. 1988. 12. 1.-2. 포모사 평등 강연

- 루르드의 성인 베네딕트 이야기
- 깨달은 스승의 유일한 의무는 종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 관음법문과 신통력의 다른 점

2. 1988. 12. 14.-15. 포모사 가오슝 강연

- 성불은 가장 높은 이상
- 죽은 후 행복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
- 관음법문 전의 예비 법문

<중국어>

MP3-CL02

1. 부처를 숭배하는 것은 진아(眞我)를 숭배하는 것이다.

1988. 6. 2. 포모사 화롄 단체명상

2. 우상숭배와 미신의 유래

1988. 6. 5. 포모사 가오슝 단체명상

3. 평상심이 도(道)

1988. 6. 7.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4. 계율 준수의 필요성

1988. 6. 7. 포모사 가오슝 단체명상

5. 사제지간의 질의 응답

1988. 6. 11. 포모사 타이중 단체명상

6. 날씨를 조절하는 신통력

1988. 6. 12. 포모사 지아이 단체명상

7. 신·구·의를 평화해야 스승의 축복을 소화할 수 있다.

1988. 6.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8. 인간의 몸이 가장 귀중하다.

1988. 10. 1.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9. 구름 종생의 과위

1988. 10. 5. 포모사 평등 단체명상

10. 인도 수행자 아르주나 이야기

1988. 10. 8.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11. 명리에 대한 집착이 수행 진보를 방해한다.

1988. 10. 8.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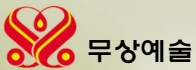


진·션·미로 빛나는 제11대 천상의 보석

겸손한 자

은둔자

디자이너: 청하이 무상사



이 천상의 보석 컬렉션은 청하이 무상사가 최근 2년간의 안거에서 얻은 천상의 영감을 통해 창작되었다. 보석의 각 부분은 신의 무한한 축복의 힘으로 광채가 더해져 정말 보기 드문 작품이 되었다.

『은둔자』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목걸이, 귀걸이 두 세트, 체인 팔찌, 팔찌, 넥타이 핀과 넥타이 클립, 반지 두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은 18K 금과 백금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형형색색의 보석들로 다양하게 꾸며졌다. 사용된 보석에는 옥, 황수정, 지수정, 토파즈(파란색), 토르말린(분홍색), 월광석, 산호가 있다. 각 보석들은 일정치 않은 모양으로 다듬어졌지만 지나치게 세공한 느낌이 없이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서 풍요로움과 찬란함이 깃든 보기 드문 예술품이 되었다.

물질세계의 은둔에 대해 스승님은 “우리는 물질적인 삶에서 도망갈 필요 없이 그저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천상의 보석 『은둔자』 시리즈는 일곱 개의 보석을 각기 다른 일곱 가지 모양으로 세공해서 우주와 우리 내면에 있는 일곱 개의 차원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명상을 통해 경이로운 초세계 영역을 방문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그 안에 은둔할 수 있다.

목걸이, 귀걸이 한 쌍, 반지 세 개, 넥타이 클립과 핀으로 구성된 『겸손한 자』 시리즈는 모두 18K 백금과 호안석으로 각지 달린 도토리 모양으로 세공되었다. 목걸이에 달린 보석들은 사각형과 다이아몬드형 잎 모양이 번갈아 가며 꾸며진 백금 줄에 연결되어 있다.

이 시리즈에는 다양한 색의 화려한 보석들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미묘한 아름다움과 광채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결과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연출해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매혹적으로 남을 것이다. 가지에 매달린 도토리를 닮은 모양은 그리 매혹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풍부함과 언제라도 자신을 회생할 수 있다는 강한 에너지를 자아낸다. 또한 이 시리즈는 광채를 드러내지 않으며 결코 거만하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수행에서 얻은 무한한 공덕을 나눔으로써 묵묵히 세상에 봉사하는 겸손한 수행자를 상기시켜 준다.